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11

저/역/자/외/탁/여/△/연/압/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YID(천리안)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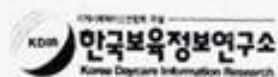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시입니다.



서울 중구 북성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 / 271-1547 ~ 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 11

저 / 역 / 특 / 약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 275-8506 ID :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년 11월호

<통권 45호>



<표지사진>

우리네 세상은 아이들 때문에 맑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웃음이다.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
「금을 준들 너를 살까?
은을 준들 너를 살까?」

(사진 / 올망졸망 어린이집 제공)

일하며 생각하며 / 4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며 임 수정

기획 하나 / 6

사회 복지와 영유아 보육사업 김 중해
둘 / 12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의 의의와 과제
이 영환

새날을 여는 사람들 / 19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 씩씩이 어린이집
편집부

그곳 보그외 / 23

영국 유학, 잘! 다녀왔습니다 편집부 정리
서평 / 29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교육연구부 조 선경

감성지수 / 33

감성지수 EQ란 무엇인가? 오 선영

연장 소식 하나 / 35

제1회 인탁위 가을 운동회를 마치며 이 경미

연장 소식 둘 / 38

우리와 함께 떠나는 「졸업여행」 고 정미

연장 소식 셋 / 41

꽃들나라의 작은음악회 김 향진

연장 소식 넷 / 44

'96 광탁위 공동가을 캠프 최 미라

짜임새

딱익스 별곡 / 47

둥근나라 어린이 집

좋은 그림책 소개 / 48

『잘자요 달님』

건강하게 삽시다 / 50

겨울의 건강한 어린아이를 위하여
어린이 건강교육 연구회

작은기획 / 54

편집부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정보센터

육아 일거 / 56

오 윤정 유빈이는 선생님

세상 일거 / 58

편집부 세상을 바로보는 용기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오빠들의 목소리 / 60

김 호연 우리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

김 수현 그때, 그명성 그대로 다시 ...

보육계 풍광 / 63

소식과 소식 / 68

편집부에서 / 72

1996년 11월호 합본호 (통권 45호)
첫발행 1992. 5. 25 / 피넛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 / 피넛이 남미영 / 푸른이 박정애, 정순
옥, 박은하 / 피넛날 1996년 11월 1일

읽으며 생각하며

아이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며

임 수정 (국악인, 중앙대 강사)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상은 좁아지고, '지구촌'이라는 말에 적합하게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 각 민족의 독자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의 독특한 특성만이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단군 자손으로서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발굴·보존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수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음악인 「국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 역시 뒤늦게 국악에 눈을 뜬 사람중의 하나이다.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장구가 무엇인지, 가야금이 무엇인

지 배울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와서야 겨우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과 민속에 관한,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문화'라는 확산 속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고자 뛰어 들었다.

맨 처음에는 풍물에 심취했고, 그 다음은 전통춤, 민요, 우리 고유의 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빠져들어 갔다.

우리의 음악은 음률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깊은 연관속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가(歌)·무(舞)·악(樂)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진정한 우리음악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악에 담긴 사상까지 공부를 한 후 그 음악을 즐겨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 음악이 형성된 그 시대와 만나게 되고 그 시대를 살던 우리조상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 음악의 이러한 특성과 깊이 때문에 10년간을 미친듯이 배우려 쫓아다녔는지 모른다.

나의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제대로 배우면 도(道), 즉 창작의 길이 보인다."

그렇다. 한 분야를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어설픈게 외국의 이론과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끼워 맞추려는 풍조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아교육에서도 역시 몬테소리·피아제·프로빈 등 외

국의 이론과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런 이론들이 과연 우리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인가?

한번쯤 진정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습과 같다는 표현들을 한다. 그래서 어린시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라건대 좀 더 전통적이고 우리다운 것들을 어려서 부터 접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다움을!

진정한 세계화는 그 민족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그 전통성에 자부심을 가질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또 다른 예측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박영민**

● 기획 하나

사회복지와 영유아 보육사업

金 宗 海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편집자 주 : 본회 조직부에서 주최한 교사 재교육 '사회복지와 영유아 보육사업' 강좌의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실습니다.

♣ 글의 순서 ♣

- | | |
|------------------|-----------------|
| 1. 사회복지의 정의 | 2. 사회복지로서의 보육사업 |
|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태 | 4. 민간기관의 역할 |

1. 사회복지의 정의

우리 말의 福祉 = 복 福 + 복 祉로서 복을 뜻하는 단어가 겹쳐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福祉란 복이 넘치도록 찬 상태, 즉 복된 생활을 이야기한다. 복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이다. welfare = well + fare의 합성어로, well은 좋은, 안락한, 평안한 이란 뜻이고 fare = being과 같은 뜻으로 살다, 지내다를 의미한다. 즉 영어의 welfare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상태, 생활을 말한다.

여기서 복된 상태, 생활의 요소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건강하고, 즉 의·식(所得), 保健, 敎育, 住宅, 기타 정신적인 서비스들을 총망라하는 의미이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福祉란 용어의 정의가 비교적 쉬운 반면에 사회란 수식어의 뜻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사회는 '사회적'이란 형용사의 줄인 말로서 몇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복지의 대상이 사회전체라는 의미이다. 통상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복지의 결과 어떤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 기

회 등)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복지의 대상이 사회전체라는 것은 복지가 불쌍하거나 문제가 있는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생활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내의 모든 사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복지의 대상이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불우 이웃'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은 소득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아플 경우나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 적용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예산이나 행정의 제약으로 인해 보호의 순위에서는 현재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복지를 제공받을 필요는 있다. 즉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부터 보호함으로써 전체 사회와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사회의 둘째 의미는 복지가 '개인'이 아닌 '집단활동=공식적 조직'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회복지란 사적인 인연을 가진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인에 대한 도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가 있게 되며, 이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 사회복지제도 또는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불리는 공적 조직인 것이다. 이 때 사회복지조직은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대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세째는 복지제공의 동기가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똑 같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나 재화라고 하더라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시장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복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시장경제의 논리-화폐에 의한 구매-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 충

족을 위해 제공되며, 사회적 동기=이타주의, 공동체적의식의 구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립된 개인들을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로 전환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료보험의 예를 보자. 지역의 의료보험의 경우 같이 원미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서로 알거나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의료보험조합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낸 보험료로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함으로써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받게 된다. 이는 앞에서 말한 낯선 타인에 대한 도움이라는 말(caring stranger)과 상통한다.

네째는 복지 실천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급자족에 의해 가능했었다. 모든 것이 가족단위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뒷처리까지 가능했었다. 판매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고 남는 것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판매하였던 것이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같은 것도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불가능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혈연공동체나 지역공동체 정도의 단위가 되면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개인의 욕구충족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규모의 집단차원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 또는 도시적 생활양식이란 생활의 개인화, 생활의 사회화라는 양면성을 말한다. 생활의 개인화란 사람들이 다

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시장과 같은 가정외부에서 구입하여 생활을 유지해나간다. 이에 의하면 현대 사람들은 물질을 매개로 하여서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뿐이며, 모든 문제, 생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도 개인화되어 있다.

반면 생활의 사회화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가정외부의 사회적 기관 - 시장이나 공공행정기관 등 - 에서 공급받아야 충족이 가능한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과 소비가 시간, 공간의 면에서 가계와 기업이라는 2군데로 분리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농경사회에서는 가계가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나, 현대 가정은 생산기능이 없으므로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전기, 물, 쓰레기처리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교육이나 가족의 부양같은, 예전에는 개인이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문제들이 이제는 가정외부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의 사회화를 해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시장과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욕구충족을 위한 장소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시장이다. 개인이 시장경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고, 일부를 장래의 필요-예를 든다면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주택의 마련, 아플 때의 치료비, 노령으로 인한 퇴직 등-을 위해 비축하는 등 자신의 소득으로 자신의 생활을 필요한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인간의 동기를 강화하고 최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여러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

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 결함(시장의 실패라고 한다)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시장이 인간이 가진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구매력에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입할 수 있는 화폐(소득)을 가지지 못하면 소비 = 욕구충족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의 임금노동자, 봉급생활자는 욕구충족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소득에 욕구충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된다. 둘째는 가격에 따라 질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계층간의 불평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산함으로써 불평등의 격차를 확대시켜 전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생활의 기본 문제(욕구)는 시장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社會福祉를 요약한다면 개인의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선언적 표현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헌법에 모든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복지의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경쟁에 의해 유지되므로 여기에서 긴장과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부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개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사회복지로서의 보육사업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면 영유아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특히 민간가정보육시설

은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혹시 국·공립을 포함하는 정부지원시설은 사회복지에 해당되고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가 아닌 시장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가?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은 사회복지이고 그 이상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가정의 아이에 대한 보육은 사회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며, 입소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표준보육단가를 고시하는가 하는 의문들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사업 그 자체보다는 양육·아이키우기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가정육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정과 부모, 특히 주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가 또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에서는 가족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와 생활의 사회화로 인하여 육아에 있어서도 이미 사회화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육아의 사회화는 육아과정이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의 생활양식중의 커다란 특징중의 하나는 핵가족화이다. 혹자는 핵가족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싫어해서 핵가족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장남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남만 3-4세대의 대가족을 형성하고

차남이하의 분가하는 핵가족을 유지했었던 것이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특징이었다. 다만 현재의 핵가족과 차이가 있는 것은 장남의 확대가족과 동일한 지역, 혈연공동체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핵가족은 대개가 연고가 없는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영위한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에서는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장이기 때문인 것이다. 부친이 고향이기 때문에 부친에 직장을 구한

사람보다는 부친에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부친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그러한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핵가족들이 얼마나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가이다. 가정의 기능으로는 생산, 휴

식, 자녀양육과 교육, 가족의 부양 등이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능중에서 현대의 핵가족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의 기능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의 양육, 성장에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가정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면서, 그리고 이웃-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이나, 형제가 아닌 다른 또래 집단-으로부터 단절된 아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쓰레기처리와 같은 것 까지도 사회화되어 가정외부에 의존하는 현대의 가정들이 아이를



<사회복지와 영유아 보육사업> 김종혜 교수

키우는 것을 가정외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인 것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정,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고할 문제가 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정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어머니는 통상 무한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어머니도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떨어져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이다. 이에 대한 편견도 고쳐져야 한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곤란해서나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만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 경제의 확장기, 즉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강조되고 어려서부터 공동생활을 경험한 아이의 자아가 더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며, 반대로 노동력의 과잉이 발생할 때에는 가정의 중요성-현모양처형의 주부-이 강조되고 어머니로부터 빨리 떨어진 아이의 성격적 문제가 부각되는가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해답을 충분히 제시해준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하는 저소득층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미 육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육아의 사회화는 저소득 노동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공공부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주로 시장과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이 식품, 의류, 장난감과 기타 육아보조기구와 같은 어린이나 육아를 위한 물품의 상품화이다. 또한 각종 사설 학원과 유아원, 가정보육과 같은 육아서비스의 시장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결국 가족구조의 변화로 육아의 사회화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정양육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육아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부모로 하여금 시장에 의존할 수 밖

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시장상황화의 육아사회화는 시장의 실패-시장에서 제공되는 육아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 곤란,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 서비스 분배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배제의 문제, 제급재생산 및 격차의 심화문제 등-와 시장의 비인간성-인간과 자연을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으로 간주하는-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므로, 시장이 아닌 공공기관에 의한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력의 증가와 가족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생활의 사회화로 인하여 육아부문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사회화가 진척되었다. 사회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보육시장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화에서 시장중심적인 성격을 배제하는, 즉 사회적 육아, 즉 사회복지로서의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태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3월 23일 우리나라 정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신복지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수준보장의 원칙, 생산적 복지의 원칙,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효율화의 원칙, 안전중시의 원칙이라는 5대 기본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노인복지의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환경개선종합대책의 마련이라는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예컨대 최저수준에 들어가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준이라든지, 소비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차이, 공동체적 복지에서 정

보와 기업, 국민의 책임분담 정도 등은 앞으로 구성될 「국민복지기획단」의 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사회복지는 특히 신복지구상과 같은 내용은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복지예산 총액은 증가했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낙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사업의 경우도 전체 사회복지의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국가의 책임분담정도가 낮은 것처럼 보육사업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정도,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한 것들은 현재 보육사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나, 아동별 지원이 저소득층아동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단적으로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인식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성역할과 육아의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보육사업을 사회복지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국가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4. 민간기관의 역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설의 수나 보육아동의 수에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온 민간보육시설이 사회복지기관의 하나로 기능하기 위해 수행해야할-상당부분 이미 수행하고 있지만,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

대행 ; 사회복지지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도 한다. 이를 대행이라고할 수 있다. 시설의 설립 형태에관계없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할 수 있다.

보충 ;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해 시행되는사회복지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이다. 그 사회의 사회 복지가 협의의 복지에 가까울수록 보충역할이 필요하고 강조된다. 보육사업의 초기 또는 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탁아문제에 참여했던 사람과 시설들이 했던 역할이나, 현재 국·공립시설에 의해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보육시설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척 ;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지는 대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부분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특수한 필요는 잘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작은 규모로 운영되어 융통성이 많은 민간의 시험적인 사업이다. 이를 개척의 역할이라 한다. 기업에 비교 한다면 소품종 대량생산과 다품종 소량생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수행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기관을 책임있게 운영, 사회적 후원을 전제, 기관의 사회화가 병행 되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참여해온 민간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보육사업에 참여하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연**

● 기획 ●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의 의의와 과제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 글의 순서 ◆

1. 복지예산의 현실
2. 정부의 복지개혁안과 1997년도 복지예산(안)
3. 복지예산 확보운동의 목표
4. 복지예산 확보운동의 과제

편집자주 :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을 위한 work shop'에서 이영환 교수님이 기조 발제한 내용입니다. 보육사업도 사회복지영역의 하나로 보육예산 증액의 요구가 전체 사회복지 예산 속에 포함이 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복지예산의 현실

<표 1>에서 볼 때, 1994년도 사회보장 총재원은 민간(기업이나 피보험자)의 사회보장 기여금과 정부의 각종 복지지출을 합하여 GDP의 5.7%이며, 1년 동안 사회보장 총지출(정부의 각종 복지급여와 사회보험 급여 포함)은 GDP의 3.7%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사용자로서의 각출) 포함할 때

GDP의 1.21%, 제외하면 1.09%이다.

<표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입과 지출의 대GDP 비중

	1993년	1994년	비고
사회보장 총재원	5.5%	5.7%	민간기여금 포함
사회보장 총지출	3.6%	3.7%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	1.2%	1.21%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보험료 부담 제외)	1.07%	1.09%	

* 사회보장 범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훈사업과 근로자복지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 노인청 외(1996)에서 재구성

<표 2>를 보면, 1994년의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총복지비 지출의 23.37% 이므로,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GDP의 약 1.42%로 나타난다.

<표 2> 우리나라 일반정부 사회복지지출의 현황 (1985-94)

(단위: 10억원, %)

년 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증가율 (90-94)
A. 중앙정부	970.9	3,259.8	4,154.4	4,589.6	5,015.1	6,133.4	17.1
B. 지방정부순계	288.1	856.2	1,325.1	1,398.4	1,727.9	1,870.2	21.6
C. 일반정부합계	1,259.0	4,116.0	5,479.5	5,988.0	6,743.0	8,003.6	18.1
D. 일반정부총지출	18,443.1	42,139.1	51,991.1	60,257.0	64,308.4	80,348.9	17.5
B/C	22.88	20.80	24.18	23.35	25.63	23.37	
C/D	6.83	9.77	10.54	9.95	10.98	9.96	

* 사회복지지출 = 보건 + 사회보장 및 복지

* 지방정부 예산은 중복부분 차감한 순계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5. 국민복지기획단(1995: 184)에서 재구성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을 국제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저열함을 알 수 있다. <표 3>은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비용이다.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사회보장 기금이 포함된 중앙, 주, 지방정부)에 의해 지불되고 통제되는 프로그램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1993년의 경우 대부분 GDP의 30% 안팎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총지출(94년 3.7%)과 유사하다.

<표 3> GDP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 (OECD)
(단위: %)

	1980	1992	1993
호주	11.68	16.38	
오스트리아	22.34	24.71	25.78
벨기에	25.63	27.01	
캐나다	13.29	19.77	19.75
덴마크	27.63	29.94	30.96
핀란드	18.87	34.78	35.39
프랑스	23.46	27.29	28.73
독일		27.26	28.27
서독	24.98	23.68	24.67
그리스	10.88	16.77	17.24
아일랜드	19.35	20.39	20.06
이탈리아	18.23	24.68	25.00
일본	11.09	12.44	
룩셈부르크	27.40	29.47	30.96
멕시코		3.83	
네덜란드	28.71	29.79	30.20
뉴질랜드	18.20	22.51	
노르웨이	18.86	29.48	29.32
포르투갈	11.65	15.60	16.37
스페인	16.49	21.41	22.52
스웨덴	30.42	37.07	38.03
스위스		20.63	
터키	4.40	7.16	7.11
영국	18.32	22.84	23.42
미국	12.44	15.55	15.64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다음으로 <표 4>는 유럽연합 12개국의 정부지출로서 1993년 현재 GDP의 8.6%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중앙정부-94년 GDP의 1.09%, 일반정부-GDP의 약 1.42%)과 유사하다.

<표 4> 유럽연합 12개국 정부의 평균 복지비 지출 (단위: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정부지출/GDP	6.78	7.54	7.03	7.69	8.15	8.61

* 정부지출은 사회보호비용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와 비슷, 주택 포함)을 의미하며, 정부가 고용주로서 기여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제외된 수치이다. 자료: EU(유럽연합), Eurostat 1993 에서 재구성.

2. 정부의 복지개혁안과 1997년도 복지에산(안)

현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거의 매년 사회복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1년에 작성했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후 21세기 위원회(1994)와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의 개혁안 등을 거쳐 1995년에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혁구상의 주요 내용은 거시적 목표, 구체적 목표 및 예산계획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등장하였다.

'국민복지 기본구상(1995)'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세계 32위로 평가하면서 이를 2000년대 초에는 세계 15위로 끌어올리고, G7 수준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2010년에는 세계 11위를 목표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둘째, 구체적 목표의 측면에서, 정부의 개혁안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에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부터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에 따라 고용보험과 농어민 연금 및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생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는 '비생산적(?)' 복지의 위축을 결과하였다. 그리고 성급한 민영화(보육 및 노인시설의 민영화, 개인연금 지원, 자원봉사, 기업의 복지활동 강조 등)는 기초적인 복지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방화정책 또한 기존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적극적 시책을 결여한 채 오히려 이를 증폭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한국형 복지모형은 그럴듯한 수사와는 달리 복지투자의 확대를 강력히 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예산계획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에산을 매년 20% 정도 증액하여 국제적 기대치에 도달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평균 재정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복지에산 증액을 계획한 소극적(reluctant) 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정부의 97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부의 61.9%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다가 최근의 돌발변수에 따른 재조정과정에서 국감비는 12% 증액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19.9%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20% 증가율에 근접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나 시민 사회운동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는 일반회계 중의 사회복지비를 6년간 매년 20%씩 증액하고 재특과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완하여, 1994년에 GNP의 0.8%였던 사회보장비를 2000년에는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수준이 국제적 평균기대치의 29.2%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¹⁾, 2010년까지 매년 20%씩 복지비를 증액하여 국제적 평균기대치를 달성하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우선 확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서 목표치 추산의 근거인 60개국 평균기대치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세계 11위)과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현정부의 복지개혁 구상은 현실인식(현재의 수준 평가), 목표설정, 실현전략과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 1997년도 복지에산(안)

국회에 제출할 1997년도 정부예산의 최종안은 1996년 9월말경 확정되었다. 최종안에 따르면 199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7조 7,80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하여 71조 6,020억원으로서 각기 전년도 예산안 대비 12.8%, 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의 특별회계들을 합하면(중복계산 제외) 총 98조 1,375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전년도의 13%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97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내세운 긴축의 명분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우회하는 사실상의 팽창예산으로 귀결되었다.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19.9%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1.9%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국방비 12% 증액'이라는 돌발변수에 따른 재정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후 당정협의과정에서 19.9% 증액으로 최종 조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의 증가율보다 높고,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20% 증가율에 근접하는 것이지만, 학계나 시민·사회운동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 1) IMF 자료를 토대로 6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복지지출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추산한 수치.
- 2) 1994년의 중앙정부 사회보장비(GDP 대비 1.9%)를 매년 20.2%씩 증액하면 2010년에 기대치의 50%(GDP 대비 5.5%)에 도달하며, 민간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비(1994년 GDP 대비 4.9%)를 2010년에 목표치(GDP 대비 11%)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7.8%의 증액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기여형이므로 민간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매년 18% 정도의 증액(이는 통상 재정증가율 14-5%의 1.2배 수준)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3. 복지에산 확보운동의 목표

■ 민간운동의 목표

2000년까지 GDP 대비 5%의 중앙정부 복지지출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40%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복지에산 확보운동이 전개된 것은 1991년 가을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사회복지학계의 항의집회가 발단이 되었으며, 이듬해 사회복지관련 8개 단체들이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사회복지관련 교수들의 성명("복지개혁을 촉구한다")과 1996년 봄의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협의회 및 국민복지연합의 성명 등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요구는 'GDP 대비 5%의 복지에산'에 대한 요구로 정식화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발전수준과는 걸맞지 않는 지극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사회복지학계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 목표설정의 근거: 복지에산 GDP 5% 확보의 필요성

첫째, 시급한 복지욕구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복지예산 확충은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복지 각 분야별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증액(50-100%)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분야별 개혁안 정리작업 진행 중).

- * 현재 사회복지제도들의 문제점을 제도의 보편성, 위험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제도의 보편성: 모든 국민 또는 복지급여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모두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
 - 사회보험의 제한성 → 연금(도시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산재(5인 미만 업체), 고용보험(30인 미만 업체, 부분적으로 10인 미만 업체),
 - 생활보호사업: 선정기준의 엄격성
 - 노령수당, 장애인 수당: 생보자 대상으로 제한 등.
 - ※ 위험의 포괄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이 포괄되고 있는가? 제도의 완비성
 - 예: 아동수당, 무각출 노령연금, 주택급여, 농어민 재해보험 등 결여
 - ※ 급여의 충분성: 생활보호수준 최저생계비 미달, 연금 급여 수준 등

둘째, 정부기능의 복지 지향적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1994년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방위비는 17.2%, 경제사업비는 26.6%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한 반면, 복지비는 총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비복지적 재정구조를 복지 지향적으로 개혁하여 정부기능의 질적 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30%-65% 정도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 5% 정도의 복지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25% 안팎에 해당된다.

셋째, 최근의 교육예산 5% 확보 명제에 따른 상징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교육예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4. 복지예산 확보운동의 과제

- 근본적인 과제는 복지 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적극적 기능을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안보 위주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극복하여야 한다. 예산확보운동은 그 출발점이다.
- 운동의 전개 :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각 분야별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총액차원의 확충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상설적인 운동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임시 대책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문별 운동의 Net Work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서역인



사회복지 관련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려는데 있다고 한다. 육아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생활보조비는 하루 한사람당 1,000(94년 830원)에 불과하다.

새날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 개원을 앞둔 씩씩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

편 집 부

가을의 드높은 하늘과 적당히 쌀쌀한 10월 어느 날, 11월 초 개원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씩씩이 어린이집을 찾았다.

서울내입구 전철역에서 약 5분 지나 거대한 주택단지를 뒤로하고 대로에서 한블럭 들어간 상가 2층에 씩씩이어린이집이라고 예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예쁘게 꾸며졌을까? 유난히 재주가 많은 선생님들이어서 기대가 자못 컸다.

명패 없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낮익은 얼굴들이 오돌오돌 떨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주혜민, 김연숙, 김수현선생님. 10월의 햇살과는 달리 집안은 유난히 추워 모두들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는데 아직 보일러를 깔지 않아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곧이어 일하는 아저씨들이 들어왔고 "왜 하필 이런 날 왔어 보일러가 되면 오지" 김연숙선생님 알.

집안은 밖에서 보기보다 더 넓었고 여성건축가 협회회의 도움으로 인테리어를 한 내부의 공간은 화사하니 통풍과 채광이 너무도 좋았다. "집 너무 잘 얻었다. 새 건물

이니 깨끗하고 넓고 나도 이런데서 일하고 싶어.." 오랫동안 만난 전편집부원 주혜민선생님께 때를 써보며.. 모두들 그동안 난방이 되지 않은 집에서 얼마나 꼼꼼히 구석구석을 배치하고 꾸몄는지 참 신바람나게 일했겠구나 하는 생각과 통합과정 그리고 어렵사리 집을 얻게 된 과정을 떠올리며 선생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취재차 왔다고 하며 인터뷰에 들어가자니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조금은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하였다.

주로 '꽃망울어린이집'과 '재롱둥이아방'이 통합하게된 배경과 앞으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작년 말부터 봉천지역위에서 꽃망울과 재롱둥이가 그동안 가난한 동네인 봉천지역의 센타로 활동해 오며 재개발로 인한 지역해체를 맞게 된다. 또한 부모의 요구가 예전의 값싼 보육료와 장시간 보육을 원했다면 아동교육시설의 증가와 발전 속에 보육의 질을 강하게 요구해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끝에 내린 결론은 현재의 형태로는, 즉 더 이상의 영세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직한 교육이념

과 교육관을 제대로 실현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보육할 방법은 무엇이겠냐는 물음 속에 열악한 두곳의 통합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오기 시작했다.

그 옛날(?) 산동네 보잘것없는 작은 집에서 웃음이 끊기지 않고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던 시절이 있었다. 돈을 벌겠다고 한 일도 아니기에 저렴한 보육료로 언제나 재정에 허덕여 후원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엄마들과 현웃바자회를 하며 작은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기쁨도 있었다. 하루 12시간 아이들을 돌보며 지쳐 가는 육체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겠다는 일념과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함도 잊고 열심히 참으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그 시절의 기쁨을, 힘들지만 기뻐하던 그 시절을 향수란 단어로 이야기하여야 하나? 현실은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했다. 재개발로 아이들은 떠나고 부모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우리의 활로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란 진지



◆ 씨익이 어린이집 ◆

한 고민을 했을 봉천선생님들, 그들만의 고민이 아닌 지탁연 소속 많은 어린이집의 현실이기에 가슴이 막혀오고 있었다.

봉천선생님들은 그 고민들을 통합이라는 과감한 방식의 전환으

로 실천해 냈다.

통합을 전제로 지나간 논의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 합치자 집 얻고 애들 보면 되지'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개인 활동 평가부터 시작되었다. 개인평가를 토대로 조직의 평가와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하였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점진적 속에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통합을 최종결정으로 토론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교사 스스로 비영리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이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비영리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비영리란 글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에게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질 높은 보육'의 내용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간 통합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고 봐요. 교사의 자세, 교육관 등

세세한 것까지 논의하고 합의하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원장체제가 아니고 5명 모두가 씨익이의 주체죠. 물론 책임교사가 필요하니 1년의 임기로 돌아가며 책임교사제를 두기로 했어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예요. 책임교사는 전체운영에 책임지고 대외활동을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부모, 자활관리, 지역일, 홍보 등으로 나누어 모두가 한가지 이상씩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며 서로간의 협조와 이해 속에 운영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인 어린이집이 아니겠어요" 재롱둥이와 꽃망울의 정신을, 그동안 활동해온 우리의 방식을 계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던 통합은 재롱둥이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가속화되었는데 집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집통합 과정 중 집얻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참 많은 줄 알았는데 집을 얻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늦춰지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란 불안감도 들더군요" 오죽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지역을 고수한 이유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어요.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기반이 있고 곧 지역문제와 밀접한 연계가 있고, 이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잘 알기에 활동의 폭과 영역을 넓히며 일을 할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의 주민연합체인 '관악주민연대모임'에 1주체가 나가요. 이전에는 놀이방=지역 일로 모두가 지역활동가화 되었는데 이제는 교사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일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의 과제는 '아동교육을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외화할 것인가'지요" 서울에서 가장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산다는 봉천동 산동네 주민들과 함께 살며, 문제들 또한 함께 해결하려는 봉천지역 선생님들....

드디어 집을 얻었고 개원날을 기다리며 아이들 하나 둘 신청자가 늘고 있고, 집안을 꾸미고 가꾸는 일에 열심이다. 돌아보면 통합논의를 하고 집을 얻는 그간의 과정은 그래도 쉬웠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들은 해본다.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자원활동가들 설득하기가 힘들고- 그들은 빈민지역의 아동지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곳은 온전히 빈민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다,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대상이 다양해지며 우리의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릴 것인가는 앞으로 봉착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많아요. 우리가 변해야 겠지요. 미련, 아쉬움 떨쳐버릴 수 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두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씨익이 어린이집은 약45평으로 40인 이하의 시설로 신고할 예정이며 영아10명, 유아 35명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며 교사는 영아 유아교사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는 새날을 열어갈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하는 따뜻한 아이가 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씨익이 어린이집은 아이를 사랑합니다.-모집 광고 문안이다.' 곧 아이가 주인이 되는 교육을 펼칠 것이며 '생활 속의 공동체교육' 실현키 위해 교사모두가 열의를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깥공간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견학이나 바깥수업을 다양화하면서 극복하려 한다고, 지역이 넓어서 차운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 물었더니 차운행에 대해서는 절대반대 입장을 보였다. "차운행은 엄마한 태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될게 없어요. 엄마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때인데 차운행하면 관계가 영 서먹서먹 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하며 000는 오늘 무엇을 하고 놀았구요. 낮잠은 얼마큼 잤구요 등등.... 그 아이의 상태를 빠짐없이 이야기해주는 우리의 습성을 버리기로 쉽지 않고 아니 버리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장점중의 장점이니 만큼,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이루어내기로 힘들일. 각자의 모색을 정착시키는데 걸리는 시기를 실험단계로 1~2년을 각오(?)하고 있다. 또한 중단된 교육에 대한 논의와 합의도 계속할 예정이라 하고.

씩씩이어린이집 개원에 도움을 준 분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역시 같이 활동한 친구들이 가장 고맙다고 주혜민선생님은 말씀하신다. 여러 명이 뜻을 모으는데 갈등이 왜 없었으랴. 함께 극복해낸 동료들 가장 소중한 법이니. 굵은 일 협한 일 마다 않고 묵묵히 일해준 자원활동가와 공사를 도와준 많은 손길들 사실 거의 후원의 형태로 보수를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란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인 박주현변호사..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전망과 포부를 들어 보았다. "지역에서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인식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개원까지는 같이하고 1년 휴직할 예정이에요. 임신한 것이 좋은 게 한껏 게으름을 펼 수 있다는 거야. 다 봐주니까" 배불뚝이 주혜민 선생님 말씀. 늦게 결혼하여 바라던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건강한 아이 낳기를 속으로

기원하였다. 아이들이 안들어 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김연숙선생님 뭐가 제일 자신 있는 질문에 "나야 뭐 다 잘 하잖아. 합의 과정에서 교육에 있어 모범을 만들자고 했고 두 집의 방식을 접근해내는 과정을 개인의 소신에 맡기고 1'2년의 실험과정을 통해 씩씩이의 내용적 통일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또한 주민에게 다가서는 것이 예전에는 10%였다면 이제는 50%이상으로 하고 안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지역의 엄마들에게 '좋은 그림책 골라주기'등의 연구를 많이 하여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영아반 선생으로 인격수양(?)을 하고 영아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에요. 재롱동이 경험으로 일과를 재미있게 하여 유아반선생님이 경쟁지 원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법모색을 할 것 입니다." 막내 김수현선생님의 포부는 어떨까? "재롱동이에서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양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이 될 만큼의 아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구요. 우리 어린이집이 지역 안에서 이웃집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거예요 통합 논의과정에서 경험이 짧아 주체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는데 좀더 앞으로는 주체적인 활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탁연 일도 더 열심히 하고요." 경험이 짧다니. 3년인데 봉천선생님들이 모두 5년 이상이 되나보니 3년은 아직 풋내기 같지만 한가 보다. 결속력 하면 지탁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봉천선생님들 '한다면 한다'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고 무엇보다 동료들 사랑하는 따뜻한 인정이 철철 넘치는 그래서 강하고 당찬 모습들, 지탁연에서의 충성심 또한 남다르고 부디 씩씩이어린이집에서 그동안 못다 이룬 꿈들을 펼치는데 모자람이 없길 기대하며 새롭게 탄생할 씩씩이교사들에게 힘찬 격려를 보낸다. **서혁연**

귀국보고회

영국유학, 잘! 다녀왔습니다

편집부 정리

편집자주 : 10월19일 정희연 전부회장 귀국보고회가 있었습니다.이 글은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실습니다. 다소 거칠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지난 11월, 12월, 1'2월, 3월, 5월호에 정희연선생님의 글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이죠. 여러분의 성원 속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할 얘기도 많고 들려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10개월 생활하면서 현장 실습 나가서 보고 느낀 점 등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게 된 동기는 영국의 Women's Council 이라는 단체-영국의 전직 대사부인들의 모임으로, 주로 아시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전직 대사부인들의 눈에 아시아는 못사는 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나라로 보였고 특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여성과 아동교육·복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던 것이죠. 해서 아시아 각 나라에서 한

사람씩 활동가를 선발한 후 10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돌려보내서 배운 것을 확산시키는 System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Women's Council의 입장은 시혜적인 관점이고 후진국에 베풀어주는 입장이었어요.

영국의 보육사업은 우리나라 처럼 수혜자 부담이고 아이 양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가 무조건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0년대 이후, 사회복지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Women's Council에서 일년에 9~10명씩 무료로 교육과 생활을 시켜주며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하여 위탁을 주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이었어요.

이곳은 학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 아닌 현장 우선, 실무 training을 우선으로 하는 course였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의 모국어인 영어가 아니기에 교육내용이 심도 깊지 못했고, 맨 처음에는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내용을 잘 들을 수 없었는데 좀 지나면서 보니 수업자체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 양성교육기관 정도였죠.

제가 영국에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는 기업의 사회환원이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다는 것이며 어느 곳의 모임에 가도 기업에서 복지부분에 많은 재원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Women's Council은 이익단체가 아니기에 사람을 선발·관리만 하고 8~9개 기업이 스폰서로 학생 한 명씩을 지원해 주는 체계이며 그중 Castro사가 저의 후원자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사회복지 모델을 아시아에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한사람을 훈련시키면 100사람이 훈련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받은 뒤 2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한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는 계약을 사전에 맺어요.

저도 2년 동안은 지탁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보고서를 올려야 하니까(?).....

저와 이전에 다녀온 사람 사이에 6년이라는 시간간격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 후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그래도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장학생선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 장학생 선발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한다면 장학생선발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 지탁연에서 잘 생각해야겠죠.

연수기간 동안 일주일에 5일은 고등학교처럼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고 하루는 현장실습을 나갔어요.

지탁연에서 다녀온 일본연수의 경우와 제가 다녀온 영국연수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데, 뭐냐하면 일본연수는 제도를 알려는데 많이 치중한 반면, 저의 경우는 제도보다 아동교육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현장실습 나간 영국의 아동교육시설은 크게 개인영역과 국가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영역에 속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종일반을 하지 않아요. 개인영역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이 많은 반면, Nursery라 부르는 국가영역의 시설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시설이라기 보다 아이들을 사회화·교육시키는 곳으로 규정지을 수 있죠.

이처럼 두 영역을 비교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종일제 보육시설은 오히려 개인영역 속에 포함되고, 국가영역은 주로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 돈으로 종일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곳 교수들은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의 영역들이 증가하고 시장경제체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아교육시설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Nursery School, Nursery Class, Day Nursery, Play Group, Child Minder, Nanny가 그것이에요.

Child Minder는 우리의 가정탁아와 비슷

한 유형이에요. 1주일에 2시간 이상 다른 집 아이들을 돈을 받고 보육하는데, 반드시 지방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증을 갖춰야 해요. 영국은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서 지역마다 자체 수요에 따라 유형별 시설분포가 달라요. 어느 지역은 Nursery가 적고 어느 지역은 Child Minder 가 많죠.

Play Group은 2세부터 4세까지의 놀이그룹으로 정부지원이 없어요.

2차대전 후 취업모가 늘어나면서 공단지역과 개발지역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기유아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Play Group운동은 초창기 어린이아이부터 노인까지 생활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목표로 삼았어요. 아이들을 매개로 시작하였지만 부모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운동의 계기는 사회보장이 열악한 지역의 아이와 부모에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Play Group중에서 Play Bus라는 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로 빨간 2층 버스를 개조하여 아이의 놀이공간으로 만든 것이죠. Play Bus는 약 15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잔디밭에 버스를 세워두고 맑은 날엔 조립식 놀이감을 밖에 꺼내놓고 놀다가 비가 오면 버스 안에서 놀아요. 언뜻 우리나라 이동도서관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 농촌탁아에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단점으로는 버스가 옮겨 다녀서 한 아이가 계속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인

데, 버스 한대가 9군데를 매일 코스를 달리 하며 돌거든요.

Play Bus는 개인영역이나 자선단체로 등록을 하고 65%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기부금 또는 현금이라 부르는 약간의 사용료를 받아 Play



정희연 전부회장 영국유학 보고회

Bus를 운영하는데 써요. 우리 지탁연 시설에서 받고 있는 후원금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Play Bus는 숫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매우 적어요.

개인영역중에 Busy Bees가 있는데 우리 지탁연 규모와 거의 흡사해요.

대부분 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고 운영은 개인이 하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원장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Play Group에 다니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해요. 원비액수가 매우 적어서 경제적인 운영난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질문했더니, "정부지원이 전혀 없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여기서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난 생활을 할 수 있다. 7년 동안 운영하면서 후회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계속할 예

정이다" 하시더라고요.

시설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매우 활기차 보였어요.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와 달리, 교사는 관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아이들을 자립적으로 키웠어요. 우리의 정서·문화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양육방식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영국에선 대체로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밀접한 접촉과 부대낌이 거의 없어서 조금은 냉정해 보였어요. 부모, 아이관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에 비해 Busy Bees는 매우 친근했고, 환경이 열악한 반면 아이들도 다른 곳보다 활발하고 교사들도 아이들과 접촉이 많았던 점이 인상 깊었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영국교사는 관찰자적인 입장이 강하더라고요.

Hare Street Nursery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지원시설로, 부모가 이용료를 내지 않고 모두 정부가 책임을 져요. 이곳에선 High Scope 접근방식이라는 교육이념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는데, 기본이념은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아이들은 능동적인 학습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교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아이의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교육방식을 보면, 아이들이 하루 일과표를 스스로 짜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확인해요. 교사는 아이들의 계획에 대해 사고의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자유로이 활동케 하죠. 영역에서의 활동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가 도와줘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활동

후에는 꼭 아이들과 평가를 해서 아이들의 개인 화일에 계획한 내용과 함께 모아두지요. 이 화일은, 부모한테는 일주일 동안 자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한 자료가 되고 교사한테는 그 아이의 평가서가 되지요.

기회가 된다면 High Scope에 대해, 소식지「우리네 아이들」이나 수련회를 통해 소개하도록 할게요.

실습기간 중 재롱잔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콘서트라고 불러요.

여담인데 '재롱잔치'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우리네 아이들」에 공모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튼 지금으로선 재롱잔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잔치를 같이 준비하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선 보통어린이집 행사를 하면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행사로 하잖아요? 한테 그쪽은, 물론 부모가 보러 오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저 즐기면 되는 것이예요.

행사는 물론 준비를 하는데 프로그램 없이 준비할 때마다 달라져요. 노래를 한다고 하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년동안 배웠던 노래를 꼭 정리해서 불러보는 식으로 진행하죠.

당일 날은 지원자를 받아서 짧은 극을 하는데 연습 때마다 매번 주인공이 바뀌어서 누구나 주인공을 해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사의 배려로, 아이들은 당일날 자기가 꼭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그전에 연습하면서 해봤기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도 괜찮아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구요.

영국의 것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돼요. 시간이 짧다보니 좋은 점만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쪽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

어요.

이곳의 콘서트와 교육방식이 기억 속에 아주 인상깊게 남아 있어요.

Griffon은 제가 방문한 개인영역의 시설 중 유일하게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보육료가 우리 민간시설의 약 2배 정도였는데도 정부지원이 전혀 없어서 운영은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해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교구교재가 많고 다양한 것이 무엇보다도 부러웠어요. 그곳의 교사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끝으로 마지막 학기에 특수학교 실습 나갔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학교에 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국은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 없고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3개월 단기훈련만 받으면 특수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제도가 도입 되었느냐는 나의 질문에, 한 교수는 자격증을 요구하면 특수교사를 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정상아와 장애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구와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아이들은 차별성이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설사 핸드캡을 가진 아이라도 바로 그런 범주로 구분되어야지 핸드캡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 논리는 1981년 교육법 개정때 채택된 논리로 그전 40년 동안은 장애를 가진 아이는, 특수학교에 가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81년 이후 점점 통합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학생-기구가 많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그 아이한테 맞는 것을 제공하는데 가능한 한, 일반 아이들과 지내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일반 국민학교 Nursery보다 위, 국민학교 1학년 보다 한단계 낮은 준비 클라스로 취학전 유치원과정이었어요. 이 학교는 재미있는 시스템으로 확립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특징에 맞게 교육을 하는 곳이며 교실은 클라스가 아닌 두 학년이 한 반을 쓰는 UNIT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영국 사회복지의 기본이 돈 많이 투자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기본처럼 작은 것을 작게 많이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런던이나 대도시로 가면 큰 학교도 있지만 제가 본 학교 중 국민학교는 2층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계도 아이들 중심이어서 각 교실마다 운동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세면장, 화장실이 교실 안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급식도 전면 실시되고 있고요. 또 영국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지 실내놀이 공간이 작더라도 꼭 있었어요.

이 학교의 교육철학은 아이들의 능력은 모두 다르고 저마다 요구가 다르기에 한 선생님이 모두 얹혀놓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일대일 교육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은 선생님과 읽기 공부를 하고-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읽기와 산수이다-, 이런 체제가 가능하려면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데 좀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전문 교사가 아닌 자원봉사자

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정도예요.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아이들의 성적평가는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년동안 개별적인 능력에 따른 활동을 한 수업내용을 개인화일에 보관하여 중고등학교까지 보낸다고 해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철저히 아이들을 파악하여야 가능한데 우리 같은 교육체제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없이 30~40명을 교육할 때에는 힘든 것은 물론이고, 그곳의 선생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전체 회의였어요. 전체라야 봤자 80명 정도지만-매번 발표시간을 갖지요. 발표는 다양한 것으로 하며 영국사회가 다민족 사회이기에 교장선생님이 특히 인종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영국에서는 '동등한 기회 즉 교육, 경제, 사회, 인종, 성, 나이를 떠나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사회적으로 잘 안되니까 어디를 가도 강조를 하는 듯이 보였어요.

발표시간엔 외국아이들-영국인인데 인종이 틀린-이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어려서부터 인종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목적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학생들 앞에서 한국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된 까닭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후일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지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과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던 지탁연 모든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연]



영국 유학 보고회후 기념촬영

서평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교육연구부 조 선 경

1992년 12월 뉴스위크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아교육체제로 이태리의 Reggio Emilia를 선정하였다. 그때까지 Reggio Emilia는 서구나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가 없었으며 왜 이곳이 선정되었는지도 몰랐다. 1991년 미국에서 Reggio Emilia의 어린이들이 한 프로젝트의 전시회가 있었고 2년 뒤 1993년 미국에서 Reggio Emilia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인 "The Hundred Language of Children"이 출판되었다. 이 책이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유아교육의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여겨져서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캐롤린 에드워드, 렐라 간디니, 조지 포먼 등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전체는 4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이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Reggio Emilia에서 배울 점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2부에서는 Reggio

Emilia의 교육자들이 묘사한 프로그램으로서 역사와 사상, 기본철학을 로리스 말라구찌와 대담한 내용을 싣고 있다. 또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의 지역 사회-교사의 협력 / 발전적 교육과정과 사회적 구성주의 / 페다고지스타(교육조정자)의 역할 / 아틀리에스타(미술자원교사)의 역할 등이 2부에 있다. 3부는 '이론에서 실제까지'라는 소제목으로 교육적이고 보호적인 공간 / 교사의 역할; 동반자, 양육자, 안내자 / 멀리뛰기 프로젝트에서의 다상징화 / 공통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4부에서는 이 접근법을 미국에서 적용해본 사례들이 나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읽는 것이겠으나 이 책이 분량도 많고 혼자 읽어서 소화하기에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Reggio Emilia의 교육에서 우리가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 방법은 이태리 산업도시인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립 유아서비스 체계로 교육철학, 학습이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교육행정체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레지오 에밀리아는 인구 13만명 정도의 도시로 이태리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이태리 전통의 건축, 예술과 풍요로운 경제발달을 기초로 하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시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도시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어서 아동 교육과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과 공동 책임의식이 강하다. 이곳의 유아교육은 2차대전 직후 부모들의 공동조합 형태로 출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시립 유아서비스 체계로 전환,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영유아를 위한 32개의 센터를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역적 특징은 유아교육체제에도 잘 드러나서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치원은 교사와 아이들만의 고립된 사회가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마치 대가족과 같이 어우러져 학교 활동과 교육적인 결정에 깊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태리 특유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관심이 이들 교육기관의 공간구성에서 반영되어 심미적인 즐거움을 주는 건물, 가구와 설비로 공간이 조직되고 빛과 그림자, 유리벽을 이용하는 공간구성이 뛰어나다. 학교 중앙에는 Piazza라고 하는 광장을 마련하여 다른 연령의 아이들, 부모 교사와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를 통한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주제나 활동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아동의 흥미를 토대로 교사가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간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년까지도 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하며, 3-6명 정도의 수준과 성별이 다른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 이렇게 소집단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 특유의 교육철학에 기인하는데, 레지오의 교육자들은 아동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고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 가는 주체라고 본다.

공동의 문제를 놓고 함께 풀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의 상이한 견해를 접하게 되고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배우게 되며 이를 '지식의 공동구성'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공통 프로젝트에서 한 아이가 "사람들이 공룡을 몰았어"라고 하자 다른 친구들이 "아냐. 공룡들이 살았을 땐 사람이 없었어."라며 그 말을 반박한다.

둘째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또래 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간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한 학습 수단으로 본다. 성인의 역할은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아동의 학습을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지원하는 안내자의 역할이다. 프로젝트의 진행방향에 관해서 교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뿐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그때 그때 아이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 주제로 무엇이 걸 맞는지를 협상해가면서 결정한다. 그래서 발현적(emergent, 점점 떠오른다는 뜻) 교육과정

이라고 하며, 교사가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교사도 같이 즐겁게 배우는 경험을 갖게 된다.

성인 자원은 교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의 사람들로 확장되어 있음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멀리뛰기 행사를 열고, 시장에게 가서 어린이들이 만든 대형 그림을 걸어놓을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세번째 특징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상징적 표상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유아기는 언어나 글로써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시기라고 보고 언어 이외에도 그림이나 3차원적 구조물, 몸짓, 점토, 그림자놀이, 상상놀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고와 아는 바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The Hundred Language of Children"이라는 이 책의 원제목도 여기서 나온 말인데 아이들은 수백 가지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뜻이다. 레지오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자료를 아끼지 않으며(물론 이것은 막대한 교육 재정에 힘입은 것이지만) 매체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훈련시킨다. 서구의 유아교육에서는 유아기에 소근육 발달보다는 대근육 발달에 치중하는 반면 레지오에밀리아에서는 작고 세밀한 표현을 하기 위한 소근육 발달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상징적 표상은 사고의 표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수단도 되는데, 그 예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부호를 통해 무엇을 읽을 지도 고려하면서 멀리뛰기 대회 포스터를 만든다.

네번째,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아이들

이 틀리고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준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수정하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넓게 더 깊게 학습한다. 한 번 관찰했던 대상을 한 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고 또다시 경험해보고하면서 재탐구(revisit)하는 것이다. 교사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으면 초조하고 성급한 우리들에게 이 점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섯번째 배움을 수 없는 특징은 기록화(documentation)이다.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학교를 방문하면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과거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한다. 교사 중 특히 미술전문교사는 학급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사와 협조하여 아동들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기록한다. 기록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일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한 말, 토의 내용을 녹음해서 풀어 쓰기, 그림 조각 등의 작품을 정리하고 전시하기,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이 포함된다. 이 내용물들을 잘 조직하여 판넬로 만들어 교실 및 전시회에 전시하게 된다.

이 기록화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전의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교사에게 아동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이후 활동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며,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통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말이나 그림, 구조물을 어른들이 가치롭게 여기고 있음을 아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현직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의 교육방법이 이론과 실천의 이상적인 결합으로 호평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리스 말라구찌라는 탁월한 교육이론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정도의)을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 면에서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교사들은 피아제나 비고츠키 등의 교육 이론을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력이 많은 교사와

논의함으로써 배우고, 교육조정자인 페다고 지스타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로서의 발달을 꾀한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의 주제 선정방법, 진행과정 등에서 배울 점들이 더 많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보기를 바라며, 다이아나 유치원의 5세 어린이들이 선언한 '어린이의 권리'를 소개하면서 마치려 한다. **[색연]**

어린이는 친구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잘 자라지 않는다.

어린이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고, 친구를 사귀고, 놀아다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린이가 잘 모르면 실수할 권리가 있다. 문제와 자신이 안 실수를 보면 알게 되니까 괜찮다.



감성지수

감성지수 EQ란 무엇인가?

오 선 영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요즘 우리네 엄마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옛날 엄마들의 육아방식보다는 건강은 기본이고 속마음으로는 좀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나 꼭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가 아닐지라도 톡 털어놓고 말해 부모들의 최대관심사는 아마도 아이들의 지적능력일 것이다. IQ가 140이상이거나 상위 1%안에 드는 학생일 경우 조기입학과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시행지침이 전달된 후 'IQ가 높은 아이=똑똑한 아이'라는 등식이 고정관념으로 인식될 정도로 IQ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은 대단하다.

지능이란, 총체적·종합적인 인간두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능검사 측정도구가 정확하지 못한데다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언제 그것을 발휘

할지 모르는 인간의 뇌를 한갓 IQ라는 수치 자체에 너무 집착해 아이를 파소 평가하거나 과잉 확대해석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IQ는 단지 지적능력을 재는 하나의 기준일 뿐 종합적인 인간두뇌 능력을 전부 평가할 수 없다는 IQ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IQ에 대한 한계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EQ(Emotion Quotient) 즉, 감성지수이다. IQ가 아무리 높고 학업성적이 좋아하여도 사회적 적응 능력이나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는 시각들이 EQ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IQ가 지능을 수치로 나타낸 것처럼 EQ도 지능을 수치로 나타낸다. 즉, 감성지능 EI(Emotional Intelligence)란,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

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이끌 수 있도록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인 다니엘 골먼은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하려면 IQ점수, 학력평가 등의 지적능력 측정보다는 '성격'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의 특성'이 훨씬 유용하다고 밝히면서 감성지능에 포함되는 다섯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 자기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다. 즉,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자립심을 키우는 능력이다. 둘째,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분노와 고민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셋째, 동기부여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능력으로 실패의 경우에도 다른 대안적 시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타인의 감정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째,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잘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핏보면 감성지능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더 약삭빠른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IQ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지구력, 집중력, 인내심 특히 개인의 능력과 개성, 긍정적 사고와 행동,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실질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EQ에 대한 논의는 IQ에 대한 대안이며 인간의 능력평가기준으로서 좋은 잣대가 될 수 있지만, 워낙 추상적인 면이 있어 측정하기가 힘들고 측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을 수치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EQ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총체적인 지적능력을 평가하는데 IQ라고 하는 수치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데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된 것 중의 하나라는 점과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능'의 측정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혹 자신의 아이가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닐까...? IQ이야기만 나오면 쥐구멍을 찾을 정도로 IQ컴플렉스에 얽매어 있는 엄마들에게 EQ는 시원한 해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Q에 대한 논의가 IQ의 대안으로 나와 학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너도나도 EQ높이기 학습전략 등 유아·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용 상업시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요즘 한창 DHA가 뇌발달에 좋다는 학계보고가 나온 뒤 DHA선풍이 국내 식품업계에서 발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좋다 좋다 하니까 수산 가공식품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과자나 음료에도 DHA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딸아이가 잘먹는 새우깡에도, 돌리돌리, 체스터 쿵 등 과자이름에 전부 DHA라니... '정말 DHA가 들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끔 들곤한다. 머리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이런 세대에서 EQ는 진정 아이들의 감성계발을 위한 지적도구로 사용되어 IQ와 EQ를 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접근 방식으로의 지적능력 테스트가 행해지길 바라며, EQ를 이용한 상업용 선전문구에 엄마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서명]

◆ 현장소식 - 하나

제1회 인탁위 가을운동회를 마치며

이 경 미 (인천 나눔어린이집)

티없이 밝다는, 푸른물이 똑똑 떨어질 것만 같으라는, 그러면서 높기만한 이 가을의 하늘을 보며 한 없이 들뜬 감동어린 마음으로 나는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제1회 인탁위 가을운동회」 - 그 옅은 손바닥 먹에 -에 대한 재미있었던 행사내용을 글로 쓰려한다 만방(?)에 자랑키 위해!



「높이 높이 뛰면서 호흡을 맞추어야죠!」

★ 인탁위 가을 운동회 ★

로이 떠오른 것이다.

행사 전날 그치지 않고 만만찮게 비가 내렸다. 내심 걱정이 되었다. 운동장 사정과 현직교사야 가깝게 항시 내통을 하고 있기에 덜 걱정이 되었지만 전직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혹시라도 날씨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하나 둘씩 빠지게 되면 어쩌나... 그러나 기우였다.

3일 아침!

전날 떠오르지 못했던 태양이 짜잔짜~안! 새

지속적인 태양이 운동회를 하는 우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가끔씩 구름으로 덮어가면서 까지 날씨가 협조를 했다. 그야말로 최상의 날씨였다.

“그래~에 하늘이 돕는구나” 준비팀이 먼저 모여서 운동장을 점검하고 자리를 다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적지도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모였다. 먼저 요즘 인천에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는 인탁위 풍물팀의 길놀이로 그 찬란하고 거대하면서 장대석이나한 화려한 막을 펼쳤다. 신나는 길놀이를 마치고 곧장 팀을 나누어 운동회라는 말 그대로 운동이 되는 땀 튀기는 결전을 시작했다.



「이겨라! 잘한다! 평소 팔 힘은 자랑할만한데...」

★ 인탁위 가을 운동회 ★

이 멀더니 뵈는게 있었을까?

조목조목 모든 경기를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적당히 애끼려 한다. 나름대로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지 않으세요?

모든 결전이 끝맺음으로 치닫고 있을때 하늘에서 한두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 “우와~아. 우리 하늘님 멋져. 행사 끝난건 알아가지구” 마지막 대동놀이를 그야말로 신명나게 한판 하고 풍물을 하면서 동네속을 헤집고 예술어린이집으로 자리 옮김. 왜? 먹어야죠- 점심이다. 몸과 맘을 아끼지 않고 오직 상품을 타겟다는, 아니 그 옛날 동심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아닌 우리 속에서 나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뛰었던 몇시간. 맛 없을까 없었다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 이었다. -준비한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니 드십시오. 그날 부러진 상다리가 몇개 었던가?-그 정도면 왕이라도 초대 가능 했었으리라. 도대체 뭐 었길래 그러느냐구요? 궁금하세요? 삼겹살에 술!....

팀은 모두 세 팀. 색깔있는 팀 이름이 또 하나의 기가막힌 맛을 더했다. 장애물 이어달리기 이것이 첫 결전이였다. 필사적으로 뛰는 노장(?)들의 모습이 껍이나 인상적이었기에 기억에 남는다. 그밖에 윗몸 일으키기, 피구, 돼지씨름, 매달리기. 줄다리기. 줄넘기... 개인전에서는 주로 젊고 탱탱한 교사보다 쪼끔 덜 탱탱한 교사들이 상품을 거머쥐어 눈길을 끌었다. -상품에 한번 눈

모처럼 대 가족이 모인자리 이것이 만찬이 아니고 무엇이라.

전직교사, 자활, 현직교사. 몸으로 부딪히며 뛰고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 속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호젓하고 정겹고 아주 이쁜자리였다. 우린 성공 했다고 믿는다. 「제1회 인탁위 가을운동회」 그 이름도 길이길이 영원하리라. 내년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후년엔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순진한 처음의 모습을 곳곳이 지키며 매 해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해본다. 마지막으로 그날 참여 하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이 가을의 하늘 만큼이나 수고하셨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한마디. 내년에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백악]

건강하세요!

인탁위 만세 만만세. 이 가을 하늘 인탁위 너네 다 가져!

- 멋진 하늘님 말씀 -



자! 모두 모여 기념촬영을!

◆ 현장소식 - 통

우리와 더불어 함께 떠나는 「졸업여행」

고 정 미 (햇살어린이집)

“너무 좋겠다 ~부럽다 ~”

“그런데 자활 선생님이라도 한명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정상에서 → 나무가 무겁지 않을까?」

★ 졸업여행 ★

주책이야... 우리 엄마들 마음은 더 하겠지?

운전기사 아저씨의 눈총과 질타 때로는 거부의 경험을 무수히 받으며(그렇지 않은 운전기사 아저씨도 많았다.) 버스를 많이 이용했던 덕분에 우리는 모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나되어 뽀뽀하게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당당하게 하면서 버스에 올랐고, 그날 아침은 그런 아이들도 대견하게 쳐다보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운전기사 아저씨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고, 웬지 이번 졸업여행이 화려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시골스러움의 풍경을 한껏 간직한 강화읍 버스터미날에 도착하기전까지, 그 2시간 30분

주위의 많은 선생님들의 한결 같은 부러움과 걱정을 뒤로 하고 무리한 강행을 한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과정들을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의, 그 기대로 가득찬 눈망울, 그것이였다. 일요일 아침 9시에 일곱명의 톡톡이 형님반(7살) 아이들과 함께 마중나오신 엄마들 앞에 일렬로 쫄 서서 “우리와 함께 떠나는 졸업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마냥 대견하고...

간의 아이들과의 신경전!(시간이 갈수록 관광버스를 만들고자 근질근질 해서 못견뎌 하던 모습)

“야 혁민아, 저 황금빛 물결 좀 봐라!”
“강화도는 섬인데 왜 배를 안타고 갈까?”
“야, 동주야 우리 저녁은 무엇을 해서 먹을까?” “환규야 갯벌에는 언제쯤 갈까?”
“야, 영수야 너 엄마한테 물어 잡아온다고 했대며?” “야, 오징어 잡아온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 성환이 너지? 그럼 인영이나?” “진아야, 성환이 엄마가 싸주신 샌드위치 좀 먹어볼래?” “이~야~저

코스모스좀 봐라. 이~야 저기 허수아비 있

다!”(아이고, 하느님 제발 차츰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힘을 쥐가며 이쪽 저쪽을 가리키며 분위기를 집중시켜 가다가 드디어는 이쪽 의좌에서 저쪽의좌로 날라다니는 상황에까지 다다랐고 나는 위기상황의 목소리로 “야, 너 운전기사 아저씨가 오래!”의 험박아닌 험박까지 하면서 휴~ 드디어는 강화읍에 도착.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니산 입구에서 신나게 점심을 먹고, 일단 매표소에 짐을 맡겨놓고 각자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 다음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한 후 드디어 산행시작! 오후 2시 반쯤 되었던 것 같다.

그동안 몇번 있어온 엄마들과의 햇살산행 덕분인지 아이들은 정말 마니산 다람쥐가 되어 신나게 정상까지 거뜬하게 올라갔다. 발강게 상기된 그 대견스러운 얼굴들을 정상에 올라가서야 볼 수 있었다. “선생님, 물좀 주세요~”라고 달려드는데, 바다로 둘러싸인 산 밑

의 풍경이 유난히 더 아름답게 보였다. 두 손을 모아 힘차게 “야호”를 외치고 올라왔던 그길을 다시 무사히 내려왔다. 올라가며 내려가며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의 생각주머니에 굉장한 자신감과 서로 어우러지는 하나됨의 기쁨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민박을 구하고, 일단 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가 맡은 각자의 역할들을 해내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야채를 씻고 썰고 지지고 볶고... 나는 흐뭇해서 헤~ 하고 웃고 있고... 민

박집 할머니는 신기하고 기록해서 눈이



「전등사에서 찰칵!」

★ 졸업여행 ★



「대자연의 위대함앞에 우리는 발도 시렵지 않다!」

★ 졸업여행 ★

휘둥그레 지고...

이렇게 맛있는 카레밥은 처음이라며 세 그릇을 거뜬히 해치운 동주! 결국 잠을 잘 때 조금(?) 말짖은 있었지만...

설겜이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애들아 이제 내일아침을 위하여 자야지? 에이~.. 안졸려?.. 네!!!.. 잤다! 잤어...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내복차림으로 밖에 (마니산 주차장)나가 귀신놀이를 하였다. 마침 걱정이 되어서 지원(?)나오신 최은하선생님과 남편을 만나 광란의 밤을 보내고 민박집에 돌아와 두분의 결혼1주년 기념식을 간단하게 거행한 후 모두 잠을 청하였다.

오~악! 그 엄청난 잠버릇! 세상에! (하느님, 제발 잠 좀 자게 해 주세요)

새벽같이 일어나 갯벌에 가자고 조르는데... 두손 두발 다들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광활한 만주벌판과 같은 갯벌에서 문어와 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마음껏 그 갯벌을 누비며 게를 잡고 망둥이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모두가 하나되어 마니산 630개의 계단보다 더 많은 추억을 간직한 채 전동차를 거쳐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우리는 드대어 우리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백민]**

☆ '우리'와 더불어 함께 떠나는 졸업여행 ☆

'우리'라는 울타리속에서 '나'와'너' 개개인의 행동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1996년10월 13일(일)~14일(월), 1박2일 회비 1만원

♣ 강화도 마니산으로

♣ 고정미 선생님과 토포이 형님반 친구들

♣ 개인준비물: 내복, 양말, 칫솔, 수저, 쌀(2끼분), 마른반찬1, 도시락(당일 점심), 모자
박성환:감자2 석인영:양념 유환규:카레1 신영수:김
권혁민:양파2 배진아:당근2 임동주:호박

♣ 전체준비물: 비상약, 사진기, 후레쉬, 버너, 코펠, 휴지, 과일칼, 김치, 치약, 비누, 실·바늘, 풍뎡·수세미

♣ 알리는 말씀

☞ 당일 복장은 운동화, 긴바지, 빨간티, 얇은잠바입니다.

☞ 도시락은 될 수 있는대로 잠곡밥에 반찬1~2개 정도로...

☞ 당일 아침은 꼭 든든하게 먹여 주세요.

☞ 비상연락은 고정미선생님 B'B 015-146-0322.

☞ 당일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오전 9시까지 모여주세요(부모님도 함께)

☞ 졸업여행 가기전, 강화도의 위치·역사에 대해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고맙겠습니다.

◆ 현장소식 - 셋

꽃들나라의 작은 음악회

김 향 진 (꽃들나라어린이집 교사)



「꽃들나라 작은음악회 여는 마당...」

★ 부산 꽃들나라 어린이집 ★

해마다 연말이면 어린이집과 놀이방들은 재롱잔치나 작품발표회로 분주하다.

우리 꽃들나라도 작년에는 장소를 빌려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재롱잔치를 했다. 하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 보람차지가 않았다.

“왜 그럴까?”

바로 이 물음에서 우리 교사들은 재롱잔치나 작품발표회가 하나의 행사로써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평소의 교육과정중의 하나라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 힘들게 지키고 노력해 온 교육목적, 즉 즐겁고 신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행사를 생각해냈다. 바로 동네 놀이터를 빌려 야외에서 하는 야외음악회를 말이다.

아이들도 일부러 준비해서 하는 재롱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배운 좋은 동요, 즉 전래 동요, 국악동요등을 엄마,아빠와 함께 불러보고 엄마,아빠들도 말로만 아이사랑,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배워보고 같이 불러 봄으로써 이를 실천해 보고, 교사들과 부모들은 동네 상점들과 여러분들을 찾아가 후원을 부탁도 드려보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행사가 되는 음악회를 구상했다.

우선 첫번째 일로 음악회의 목표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과 부모님을 교육의



「우리들만큼 잘할 수 있어요? 이래봐도 연습 많이 했다고요!!」

★ 부산 꽃들나라 어린이집 ★

주체로 서게 한다'로 정하고 준비위원회를 부모님과 함께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어린이를 위한 꽃들나라 작은음악회"라는 슬로건도 정하고 역할도 나누고....

음악회 준비는 재롱잔치에 비해 연습하고 만들고 하는 노력은 적었지만 결코 쉽고 만만한 행사는 아니었다. 행사에 드는 비용도 재롱잔치와는 비교가 안되게 많이 들어 자체 회비만으로는 불가능해 부산 시내 여러곳과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후원을 부탁하고 필요한 비품과 무대등을 저렴하게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요교실도 부모에게 동요를 가르쳐 보겠다던 야무진 기대로 시작했으나 아이 대상이 아니라 부모대상이다 보니 아이들과 주로 지내는 교사에게는 썩이나 부담스러웠다.

이런 준비기간동안의 초조함과 불안속에 음악회는 오전에 내린 비까지 물러가게 하면서 우리의 설렘속에 성대히 시작되었다.

본래 시작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4시 50분.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신디사이저의 반주로 가을편지란 여는 음악이 시작되었고 부산보육교사회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주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축하말씀등 열린마당을 끝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멋진 노래부르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간에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연습한 '꽃동네 새동네, 어른들은 몰라요'의 부모님 합창이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6살 고사리 손으로 장구를 치며 열심히 불러본 산도깨비, 율동, 작품전시, 캄캄한 놀이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다과회, 부모님들과의 뒷풀이....

음악회는 비록 꽃들나라라는 작은 놀이방이 주체가 되어 시작되었지만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 냈고 여러가지 경험들도 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일년동안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 주제별로 좋은 동요를 선정해 동요곡집을 만들었고 아이들은 혼자서 하던 재롱잔치보다 몇곱절 노래와 율동을 자신있게 해 냈으며 부모님들도 어색하기는 하지만 무대에 서서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고 합창곡을 불렀다. 주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기꺼이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친손주처럼 여겨 주시며 축하의 인사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아이들이 견학을 갔던 기관차 사무소 아저씨들은 당일 아침까지의 야간근무를 마치고도 피곤한 몸을 쉬지 않고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 또 우리 구에서 선거에 출마하셨다 낙선하신 아저씨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사회를 맡아주시기도 했다.

일시: 96년 10월 12일 오후 5시 주최: 꽃들나라



「꽃들나라 작은음악회, 엄마·아빠와」

★ 부산 꽃들나라 어린이집 ★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제 음악회는 끝났고 비록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큰 일을 해낸 것이 무척이나 대견스럽고 기쁘다(물론 순전히 우리만의 힘은 아니지만 사람을 꾸리고 후원을 받고 구상을 해낸 것 또한 한편 생각에는 교사들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많은 일들 속에 몸은 피곤하지만 지역속에서의 꽃들나라, 부모들과 함께 하는 꽃들나라, 마을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그려져 가슴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슴뿌듯함 저편 밀려드는 앞으로 계획과 부담스러움, 잘 마친 행사 뒤에 걱정되는 내년의 전망, 정말이지 한 일보다 남은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행사를 통해 한가죽처럼 다져진 부모님들의 열과 성의를 진정 교육의 주체로 계속 세우는 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도와주신 여러 이웃들과 주위분들과의 지역사업(내년에는 음악회를 동네 청년회나 부녀회와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교육속에서 꾸준히 우리의 교육관을 실현해 나가는 것 등등....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후속화시켜 나가지 못하고 일반화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반복한 실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고 음악회가 진짜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기에 더욱 기쁨은 짧고 해야 할일이 걱정되기도 한 것이다. **계속**

“우리마을 어린이를 위한 꽃들나라 작은 음악회”

앞으로는 지역속에서 함께 하는 마을잔치가 되리라 생각한다.

◆ 현장소식 - 넷

<'96 광탁위 공동 가을캠프>

“나무야 뭐하니, 나랑 같이 놀자.”

최 미 라 (도담도담 어린이집)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들떠 있었다. 자신의 몸만큼이나 커다란 집꾸러미를 찡찡거리며 끌고 오면서도 평소의 어리광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엔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자, 다들 모였어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캠프가는 날이요.”

“그럼 우리 캠프구호 한번 신나게 해봐요, 시-작!”

“나무야 뭐하니? 나랑 같이 놀자. 야야 야야야 ~”

흥에 겨운 아이들의 높은 소리가 어린이집의 천정을 뚫을 듯 찌릿하게 울렸다. 우리아이들의 가을캠프인 ‘숲속나라 여행’이 시작되었다.

X X X

여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교사는 더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했다. 다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겠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여름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의 특성이 좀 덥고 땀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교사들은 더욱 바빠진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목욕을 시켜야 하고 땀에 젖은 바닥을 몇 번씩 닦아내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아이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등등.

그래서 매년 여름이 시작되면 캠프에 대한 준비도 같이 시작된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하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 학기를 지내면서 부적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광탁위 식구들의 전체 단합의 장이 되는 여름 캠프는 여러가지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성스레 치루어지는 년중 행사였다.

그런데 올해는 여름캠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이것저것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 숫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장소 선정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아이들의 안전과 좋은 내용을 함께 충족시켜 줄 만한 곳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넓은 잔디가 있고 시원한 그늘과 쉼 곳이 있고 얇고 깨끗한 개울이 있고 사람이 많지 않아야 하며 우리아이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이미 캠프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모기도 없어야 하고 아이들은 모닥불 놀이를 좋아하는데 너무 덥지는 않을지 목욕시설이 잘된 숙박시설은 비어있는 곳이 없을까? 고민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

그래! 가을 캠프를 가는 거야.

X X X

9월 12, 13일. 1박2일의 캠프는 광주에서 한시간 거리에 있는 남원 광한루에서 시작되었다.

넓은 잔디밭과 맑은 물, 그속에서 파닥거리는 형형색색의 잉어들. 아이들은 마음껏 웃고 뛰고 신기해 했다. 긴 그네에 두명씩 매달려 이도령과 성춘향을 흉내내어 보기도 하고 월매집 담장 해바라기와 키재기도 해보았다. 기저귀를 이어 만든 줄다리기로 줄다리기를 끝낸 다음 캠프장소인 ‘남원 자연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겼다.

“와, 잠자리다.”

“선생님 메뚜기예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자연과 친해져 갔다. 아이들을 모으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어쩔 수 없이 들렸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동안은 캠프장을 뛰어 다녔다.

겨우 아이들을 모아 개회식도 하고, 각 시설별로 인사도 하고 조도 나누고 조별 담임 선생님도 정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한고개 너머에 있는 숙소로 즐거운 발걸음을 옮겨 저녁도 맛있게 먹고 짐도 정리했다. 짐정리가 끝나고 아이들은 분장을 시작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인디언옷과 추장모자, 그리고 커다란 보자기와 물감으로 인디언과 박쥐인간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분장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밖은 이미 어두컴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위풍도 당당하게 캠프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고개를 넘어 캠프장으로 달려갔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이들은 작은 시절의 예쁜 추억하나를 만들어 갔고 캠프를 준비하면서 익혀뒀던 춤숨씨는 무대위의 불이 켜지자 그 절정에 다다랐다. 세살박이 꼬마 친구들도 어둠속이었지만 겁내하는 기색없이 춤을 추며 놀았다. ‘나의 미운 행동 3가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불꽃속으로 날리고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엄마생각에 울음을 꺾

놀이 참을때쯤 수풀속에서 숲속나라 친구들이 나타났다. 사슴, 곰, 강아지등 동물캐릭터를 뒤집어 쓴 자원활동가 삼촌들이 등장한 것이다. 놀라 울기도 하고 겁나하면서도 만져보기도 하고 곧 친숙해진 동물들과 우리아이들은 같이 춤도 추고 목말도 타면서 폭죽으로 놀이마당을 끝낼 때까지 신나게 놀았다.

다음날은 아침6시부터 일어나 뛰어다니는 아이들 덕분에 저녁에 평가회를 가진 선생님들은 서너시간의 수면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아침산보를 가고 평소보다 두배의 아침식사를 해서 더욱 씩씩해진 우리 아이들은 등산과 자연관찰, 나뭇잎 찍기등으로 캠프에서의 다양한 경험활동을 하였다. 조금은 힘든 일정이었는에도 하나도 지친 기색이 없이 폐회식까지를 의젓하게 지키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너무 대견스러워 어쩔줄 몰라했다.

1박2일의 소중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네살박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사슴이랑 곰이랑은 어디 갔데요? 선생님이 꼭 놀러오라고 그러세요- 잉?” **자백**

** 광주선생님들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조직부장의 실수로 사진을 잊어버려서 실지를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 책 소개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E.Q를 높여주는 육아제안 20-

오숙희 추천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지음
육아 · 여성 실용 / 국판 / 200면 / 값 5,500원

‘우리 아이는 놀이방에 있는 동안 무얼 하며 지낼까?’

지택연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모두 여섯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아이들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아이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만3-6세 아이들의 E.Q(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보여, 전에는 그냥 ‘아이니까’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하고 그 깊이만큼 성숙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부모들과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 혹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소 별곡

동근나라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하나 - 나는 총각이에요

준영이 올해 다섯살인 남자아이다.

선생님 : 준영이 아저씨! 뭐해?

준영 : 선생님 나 아저씨 아니에요. 총각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 그러니. 선생님은 아가씨인데

그러면 준영아 ‘준영이는 총각, 선생님은 처녀’ 우리결혼하면 어떨까?

준영 : (한참을 고민하더니, 뚝뚝미지근한 표정으로) 네.....!

이야기 둘 - 시집가세요

아이들과 스피드킷에 갔다가 아이들의 예고에 넘어가서 선생님어 사탕 하나씩을 사주었다.

아이들 : 선생님 우리 사탕 한개씩 더 주세요.

선생님 : 안돼! 많이 먹으면 이 다 썩는다.

아이들 : 웡~ 하나만 더 주지

선생님 : 싫다~

아이들 : 흥! 싫으면 시집가라.

선생님 : 선생님도 시집가고 싶은데 남자가 없어서 못간다.

아이들 : 삼촌들 있잖아요.

선생님 : 뽕~

여기서 삼촌들은 어린이집에 자연발동 삼촌들을 맡았다.

이야기 셋 - 우리 동생은 대머리

햇님반 아이들이 점심을 먹다가 하는 이야기다.

아이(1) : 우리동생 머리는 대머리다.

아이(2) : 흥! 우리동생은 더 대머리다.

아이들 : 맞아! 아람이 너네 동생보다 성윤이가 더 대머리아.

선생님 · 아이들 : 우하하하.....

좋은 그림책 소개

잘자요, 달님!

클레먼츠 허드 그림 · 마가렛와이즈 브라운 글
 이연선 옮김 / 시공사 / 5,500원
 김 랑 희 (초록별어린이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은 점점더 환하게 비
 추어 올라오고... 방안은
 어두워지고... 저녁 7시
 커다란 초록방안에 달
 을 뛰어넘는 염소(액자)
 · 스텐드 · 빨간풍선 ·
 작은 곰들 · 의자들 ·
 아기고양이들 · 병어리
 장갑 · 시계 · 양말 · 작
 은집 · 생쥐 · 빗 · 숟 ·
 옥수수죽. 이들도 잠이
 들어간다.

특별한 이런저런 내
 용도 없다. 이들이 주인
 공이고 내용이고 배경
 이 된다. 사물 하나 하



나에 "잘자요 00"라고 이야기 하며 한장한장 지나갈 뿐이다.
 맨 뒤에는 "잘자요 먼지, 소리들"이라고 하며 정말 모두를 잠재운다.
 아이들과 함께 모두 누워 방안에 있는 사물들을 둘러보면서 "잘자요 00" "잘자요 누구누
 구"해본다면 낮잠시간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의외로 밝고 현란한 색상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나 책속의 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
 씩 어두워지는 방분위기와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밖의 분위기는 잠잘시간이 되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과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짚어보는 재미도 좋다.
 글과 내용이 짧고 간결하여 3·4세 유아에게 적합하며 하늘이 높고 말이 살지는 계절
 인 만큼 한권씩 구입하여 불만하다. **서평**

건강하게 살시다

겨울, 건강한 어린아이를 위하여

❁ 어린이 평화학교 어린이 건강교실 ❁

어린이 건강 교육 연구회

1

아직도 여름의 풍요로움, 땀냄새, 차가운 목욕 뒤의 시원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얇은 옷 밑의 살갗에 소름이 돋는 계절이다. 지난 봄에는 우리 평화학교의 사람들-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을 계절에 상관없이 우주의 몸으로 세워나가겠다는 내심 강한 다짐을 했었다. 그래서 여름엔 소처럼 여러 종류의 날 채소들을 끼니마다 먹었고, 이왕에 목욕을 할 때는 냉온욕을 했다. 여름은 더워서 좋다고, 여름이 아니면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느냐고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전에 간혹 사용하던 선풍기마저 아예 구석에 쳐 박아 놓고 꺼내지 않았다. 여름 밤의 바람의 손길을 느끼려고 달빛이 똥구멍을 하늘로 쳐 들고 자는 우리 아이들의 자는 모습에 축

복을 내릴 것 같아서 창문이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두살박이 막내의 얼굴을 마치 수두를 하는 것처럼 온몸에 모기에 뜯긴 자국으로 볼만해진다. 어둠 속에서 웅웅대는 모기의 소리조차 여름에만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느껴져 올 여름부터는 아예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뜨거운 여름의 한낮엔 평화학교의 작은 악동들은 태초의 아담이 되어서 맨몸뚱아리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온몸에 흠과 오줌과 모래 등이 범벅이 된 채 아무나에게 안기려하고 새까만 발로 방이건 이불이건 막무가내로 활보했다. 이 아이들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저 아이들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칭찬인지 나무람인지 구별하기 힘든 말들을 했었다.

2

평화학교의 악동들의 호시절은 가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악동들은 일제히 콧물이다 기침, 때로는 펄펄 끓는 열까지 겹쳐서 밤새 끔끔댄다. 평화학교의 악동들이 옷을 입고 다니자 이웃 사람들은 또 옷을 입었다고, 악동들의 호시절이 가서 안됐다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 콧물이 하도 나와서 얼굴 전체는 콧물로 범벅이 되어 코와 입 주변은 말라붙은 콧물로 아예 도둑 고양이의 물골이다. 밤에는 콧물이 코딱지가 되어 콧구멍을 막아 버려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잔다. 그러니 당연히 목과 기관지에 부담을 주게 되어 쉰 목소리에 기침과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 네살박이 악동은 몇 년만에 몸살을 앓느라고 며칠째 낮에는 그런 대로 놀다가도 해가 지면 시들시들하면서 밥도 안 먹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자기 시작한다. 몇 시간이 지나 끔끔 앓는 소리가 나서 가보면 온몸이 불덩어리다. 거기다 쿵쿵 개 짖는 소리의 기침도 간간이 한다. 몸 안의 열이 지나쳐서 눈곱이 나와 눈을 뜰 수 없게 된다.

한 여름 햇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평화학교의 악동들은 찬 바람이 약간 불어 오자 터실터실해진 얼굴의 그 뽀양 그대로 풀이 영 말이 아니다. 이 악동들을 지켜보는 평화학교의 어른들은 조마조마해서 저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한시도 맘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 내리라고 뜨거운 물에 다리목욕도 시켜보고 기침하지 말라고 가슴에 겨자점질도 하려고 하지만 이 악동들은 막무가내다. 자기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아우성이다. 평화학교의

어른들은 많은 치료법들을 알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악동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일곱 살 난 제일 큰 악동은 스스로 감잎차에 죽염을 탄 물로 목과 콧 속을 씻고, 고추엿도 먹고 종종 뜨거운 물에 다리목욕도 하면서 감기가 있는 중에도 반팔소매옷을 입은 채 열심히 뛰어다닌다. 어른들을 도와 고집쟁이 동생들을 보살피려고 어르기도 하고 하지만 밑의 악동들은 무조건 틀만 나면 안으라고 하고 열이 펄펄 나면 서도 밖에 나가자고 조른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환절기 감기에 속수무책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바쁘기도 하다. 생각 같아서는 다리목욕에 겨자점질까지 약 30분만 집중적으로 아이를 간호하면 늦어도 2-3일이면 감기쯤은 거뜬히 낫겠는데 두살, 세살, 네살 연년생의 평화학교 악동들을 어른 둘이서 제압하기가 벅찬 것이다. 비가 오면 하나같이 어린 양을 하면서 고집을 피운다. 어른들은 하루하루 변화하는 아이들의 몸의 증상들, 기분, 동만을 관찰하면서 가슴 졸인다. 평화학교의 어른들은 나름대로의 의학지식과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의 몸살에 때로는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을 졸인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지 모르는 어린 아이의 질병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른들은 숨을 죽이고 번갈아 가면서 급한 아이부터 두터운 솜이불에 싸서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작은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마음 속으로 아이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원을 하는 게 고작

이다. 품속에 안긴 아이는 그때만큼은 지극히 편안하게 눈을 감은 채로 몇 십분을 즐긴다(?). 그러다가는 뒷날 아침까지 잠을 잔다. 이렇게 아이들은 처음에 콧물을 약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루 이틀 사이에 아이에 따라 미열과 고열을 반복하고 기침에 가래, 눈곱까지 겹쳐 붙어 말이 아니다가 이삼일을 고비로 평상의 모습으로 스스로 회복한다. 그렇게 아이들이 낫고 나면 그제야 평화학교의 어른들은 바짝 긴장하였던 마음과 몸을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다.

3

평화학교에 처음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무척 긴장을 하였다. 싫다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하여 다리목욕을 시키고 어른들은 하루의 일을 다 정지하고 아이를 돌보는 데만 몰두했었다. 해가 가면서 평화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몸 이상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 경험과 연륜이 생기기도 했지만 크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질병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열나고 기침하고 가래 끓는 소리로 그르렁대는 것은 불쾌하기만 하고 두려운 것일까? 또 콧물은 어떤가? 아이들은 어떤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면 어찌나 하는 어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성가신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무차별한 의학선동(?),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거의 무지에 가까운 의

학지식 등등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 우리의 불안과 답답함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조급하고 습관적인 의료조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간단한 감기에서 만성질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일간지에서 병원의 질병치료가 25%에 불과하다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의원병(醫院病-의약이나 의료적 처치가 원인이 되는 질병)이 공공연해지는 수준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의 질병은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는 데 비해 의료적 치료로 좀처럼 낫지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질병에 좋다는 것에 호기심이 높아져서 좋다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것이 좋은 지 더욱 난감하기만 하고 좋다는 것은 왜 그리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 불안한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간다. 사람들은 그 어떤 요법을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만병통치의 그 어떤 특효요법을 바란다.

특효요법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알아야 한다. 그러나 특효요법 이전에 몸, 바로 하나뿐인 자신의 소중한 몸을 알아야 한다.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의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몸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면 기를 쓰고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각 가정의 주부가 의사가 되어야 하고 각 가정의 주방이 약방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몸은 어렵다고 하는 의과대학 6년에다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밟아야 알 수 있는 것일까? 그 옛날 학교 자체가 없었을 때는 어찌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의학교

육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사는 일반 사람들도 다 질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다. 몸은 그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질병은 몸의 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질병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신의 몸을 아는 것, 물론 별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닫혀 있었던 우리 몸을 향한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알리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어도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 메시지를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 생긴 탤런트를 자세히 볼 시간은 있어도 목욕을 할 때나 똥을 눌 때 우리의 살갗이라든가 손발톱, 눈, 코, 입안, 머리카락 등등을 살펴볼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평화학교에서는 몸이 몸을 다스리는 길을, 원래의 몸의 길을 찾아 보려고 애를 쓴다. 평화학교의 악동들이 아파도 먼저 온

신경과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아이들 질병에 도움되는 요법들을 알고는 있어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야생의 식물들 중에 그토록 달콤하고 싱그러운 열매를 맺는 식물들 중에 벌레 없는 나무가 없을까 싶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두 차례 몸살을 겪지 않는 나무가 없을 수가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몸의 원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어른들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토록 싫다는 아이를 병 낫게 한다고 못 살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 아플 것은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 온전하게 아픈 것을 도와주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른의 배려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서 그 아이들의 요구를 잘 헤아려 보면서 조용한 집안 분위기, 거의 단식에 가까운 식사, 아직 난방하지 않은 방안에서, 이불 속에서 아픈 아이들과 겨안고 뒹굴다 보면 그래저래 아이들의 질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지만 덕분에 아이도 어른도 감미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영민]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담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몸짓기 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自然産 食餌療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 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주소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전화 : (02) 882-4705, 팩스 : (02) 878-4624입니다.

◆ 작은 기획 ◆

부산대학교부설 보육정보센터

◆ 소장 : 황 해 익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소재지 : 우)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전화)상담실 051-510-1589 / 도서실 051-510-1585
전송)051)581-0068

◆ 설립목적

영유아보육법 제 5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거하여 본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 및 보육관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보육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각종 보육프로그램을 비롯한 보육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관련 상담실과 도서실의 운영, 각종 연수와 세미나개최를 통한 종사자교육, 지역사회 보육시설의 장학, 보육정책수립 및 관련자료의 제공 등을 주요업무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보육관련시설 및 종사자들과 보육시설의 이용자, 보육연구 및 정책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주요사업내용

- ▶ 「부산보육정보」(월간 보육소식지)를 비롯한 보육관련자료제작 및 배포
- ▶ 보육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상담실의 운영
- ▶ 보육관련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도서실의 운영
- ▶ 현직교사 및 관련자를 위한 교육기회의 마련
- ▶ 보육대상 아동,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와 시설간 연결
- ▶ 보육시설의 질관리를 위한 보육시설의 장학 및 보육정책자료의 마련

◆ 시설이용 안내

◇ 상담실 ◇

- 상담시간 · 방문상담 월·수·금 : 14:00-18:00
· 전화, 우편, 팩스상담 : 제한없음
장소 ·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 1층 상담실
대상 · 보육관련 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

◇ 도서실 ◇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 토 9:00-13:00
대상 · 보육관련 종사자 및 학생, 일반인
자료 · 보육관련 서적 3,000여권
· 20여 종의 정기간행물과 신문류
· 각종 시청각 자료

◆ 직원의 구성

소 장	보 육 지도원	사 서
센터 운영및 관리	업무관리 및 기획	보육도서실 운영 보육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
		전산 요원 자료회원 관리 보육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관리
	보육관련 상담	취업알선 축탁 영양사 영양관련 상담
		영양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 축탁 간호사
	『부산보 육정보』 책임편집	건강관련 상담 건강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

육아일기

유빈이는 선생님

나 온 미 (전 오손도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의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아기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유빈이를 보면서 '그 말이 정답이네'라는 생각으로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유빈이의 모든 것을 관찰하면 신기하고 재미있어 엄마는 빙그레 웃음 짓는 때가 많습니니다.

생후 2개월 반이 지나면서 등을 들썩이며 뒤집으려 하기에 손으로 살짝 건드렸더니 뒤집혔는데 팔을 못 빼서 괴로워하더라구요. 그 후로 틈만 나면 날아가는 슈퍼맨처럼 팔을 쭉 펴고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다리는 들어서 옆으로 돌리려고 하구요. 꾸준한 연습 덕분에 다리를 잘 돌리게 되었고 엉덩이가 돌아가고 배·가슴이 돌아가더니 마침내 혼자 뒤집게 되고 팔도 빼게 되었어요. 20여일 동안 노력하더니 유연한 몸놀림으로 뒤집게 된 거지요.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유빈이가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바로 눕히면 다시 뒤집어 저서 힘을 줍니다. 그러더니 뒤집기에 익숙해졌

고 엄마는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유빈이가 계속 뒤집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방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손에 닿는 대로 만지고 입에 넣는 거예요. 부딪혀서 다칠까봐, 더러운 물건·위험한 물건을 입에 넣을까봐 지켜보느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지경에 이른 거지요.

선배엄마들이 누워서 바둥거릴 때가 편하다며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세월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힘들어하는 후배엄마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편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힘들어지는 대신 아기는 점점 더 예뻐진답니다.

젖살이 적당히 붙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구슬이 구르듯 웅얼거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점점 자라는 그 모습은 육아와 집안 일에 지친 엄마와 직장에서 시달리는 아빠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는 유일한 낙이랍니다.

이제 6개월이 된 유빈이는 혼자 앉고 싶은지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썩거립니다.

팔과 배로 기어서 방안 구석구석을 돌아

다니며 살펴 대더니 좀더 높은 곳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나 봐요. '엄마' '아빠'를 부르고 일르면 깔깔대며 웃기도 합니다.

엄마가 외출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면 울고, 혼자 놀라고 내버려두면 같이 놀자고 떼를 쓰기도 한답니다. 만지고 싶은 것을 못 만지게 하면 신경질을 내기도 합니다. 한 단계씩 조심스레 그리고 열심히 배워가는 유빈이에게 엄마·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 거리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저것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놀이감이나 물건을 힘들게 움직여서 만지다 입에 넣으면 "유빈아! 이렇게 먼지 묻은 걸 입에 넣으면 병균이 들어가서 아아아아 아파요. 이리주세요."하고 빼앗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뱉기더니 조금 지나서는 꼭 쥐고 힘을 버티고 나중에는 물어 버립니다. 책상 밑에 들어가 전선을 만지작거리면 안아다가 될 수 있으면 멀리 놓히면서 "저것 만지면 전기가 몸에 들어가서 찌릿찌릿 아아아아 하니까 여기서 놀아요." 하고 나면 어느새 또 기어들어가 있고 그러면 또 안아오고 몇 번씩 되풀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 없이 안겨 오더니 나중에는 몸을 쭉펴고 버티며 얼굴을 방바닥에 묻고 울고 맙니다.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것을 말리면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되었다고 엄마 혼자 생각한 거지요.

어느 날 방밖으로 나가면서 라디오를 틀어 놓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들레들레 살피더니 라디오 옆으로 기어가 이것저것 만져 보고 전선을 빼는 거예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며 입에 전선을 물고 돌아보며 눈이 마주치자 씩하고

웃는 거예요.

'엄마, 나 괜찮지요!'하는 듯 말이에요.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아차. 엄마가 잘못했었구나. 엄마 편하려고 유빈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했구나'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빈이가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방바닥에 적당히 이것저것 늘어놓아 만지게 하고 입에 댈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닦아 놓고 방 한쪽에서 유빈이가 찾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빈이를 통해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영·유아기의 성장·발달을 유빈이를 선생님 삼아 열심히 배우고 유빈이처럼 꾸준히 노력하여 모범엄마가 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썩썩**

유빈이 엄마, 힘내세요!



세상읽기- 11월호

세상을 바로 보는 용기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편집부

“아줌마, 뭘 봐요?”

“예? 저기 뭐 하는지 보려고요.”

“가요, 가! 볼거 없어요!”(고함친다)

(소리를 높이며)“저기 뭐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더 큰 소리로)“알거 없으니 그냥 가요!”

“알거 없긴 왜 알게 없어요? 내가 궁금해서 알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이 아줌마가, 가라니까 잔말이 많아!”하며 떠다 민다.

10/15(화) 서울 경찰청앞에서의 대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경찰청앞에서 여성단체회원 20여명이, 10/8 국회 내무위원회의 서울 경찰청 감사장에서의 사건에 대해 「여대생 성추행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여성캠페인」을 벌이려 하였으나, 시작하기도 전에 모인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전경이 둘러싼 뒤 해산하도록 종용하였다. 여성으로서 함께 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캠페인은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발표하지도 못한 채 결국 9시 55분에 해산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길을 지나가던 아줌마가 무슨 일로 그러는지 궁금하여 알고자 하였으나 경찰들에 의해 적인처럼 떠밀려 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의식있는 여성들이 사회의 잘못을 알리며 잘못을 바르게 고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을 못하게 하는 정부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눈멀고 귀먹

고 살도록 강요하는 사회!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잘못을 잘못됐다 지적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 병어리로 살도록 강요하는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며 살고 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살고 싶지만 서로 무관심하게 살도록 조장하는 그런 사회말이다. 나 혼자만 잘살기 위해 시간가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비리에 분노하며 정의롭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궁금하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를 쫑긋 세워 열심히 듣고, 입으로 정확히 물어보아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말로는 쉬워도 이렇게 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살아온 날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리라.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우리의 요구를 큰소리로 외칠 수 있는 용기말이다.

그럼, 10월15일로 돌아가 용기있는 눈과 입을 가지고 들어보자.

1996년 10월 8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서울 경찰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한총련 진압과정중 여학생에게 가해진 성추행 사실을 열거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였다.

이날 추미애의원을 통해 밝혀진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 사실을 상식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범죄이다. 전쟁중 적을 소탕하는 상황도 아니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여대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질서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탈진해서 저항할 수 없는 여대생을 연행하면서 고개도 못들게 하고 여대생의 젖가슴을 쥐어뜯으며 성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한참 피어날 여대생과 이땅의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행위인 것이다.

[사례]

“자백하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라는 경찰의 말에 만들지도 않은 화염병을 만들었다고 거짓자백하여 구속된 김은영양 (H대 중문과 4)

“북에 가서 창녀짓이나 해라!”라는 말을 들으며 전경에게 가슴을 쥐어 뜯기고 구타당한 김소연양 (H대 광고홍보과 4)

또한, 이날 추미애 의원의 발언도중 퇴장한 신학국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여성들은 암담한 심정을 느낀다. 이미 성을 도구로 해서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성폭력을 3대 범죄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퇴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를 추방해야 할 경찰이 성추행을 저질렀으니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과거 5공 시절 부천시 문귀동에 의해 저질러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은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다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공권력에 의한 성고문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건으로 당시 5공화국은 비도

덕하고 추악한 정부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았었다. 이처럼 국민의 노력에 의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추방해 왔는데 민의를 대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할 국회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사실 여부를 규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문제를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신한국당 의원들은 사건의 진상파악보다 성추행의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는 추미애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공격하였다. 이처럼 여성의원이 성폭력과 관련한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품위’ 문제로 제한받는다면 여성의원들은 진실을 보고도 품위를 지켜야 하므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밝힐 때 피해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성차별적인 편견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성의원을 ‘품위’ 운운하며 모독하는 것은 결국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대생을 다시한번 짓밟은 것이다

간곡히 요청컨대,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해 민주사회와 성차별없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후회시켜서는 안된다. [역언]



특소리

우리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안다.

김호연(다우리어린이집 교사)

어릴때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여행을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스무살이 되던해까지도 해보지 못했었다. 처음 난생처음 혼자 여행을 떠났던 작년 이맘 때.

그땐 세상이 무너질 듯 희망이 없어진듯 했었는데...사람이란 본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가슴 한켠에 묻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작년 여름은 나의 첫번째 절망이었던 건 확실하다. 다시 한해가 지난 이번 여름에 난 제주도도 가는 배의 갑판위에서 이렇게 글을 쓴다.

다우리에 온지 10개월, 보육교사가 된지는 1년3개월, 새내기 교사다. 전엔 직장에서 월급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무언가 내 인생에 다시는 되돌릴 수없는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한다라는 생각에 보람이라든지 즐거움이 없었다. 지금의 가장 큰 변화라면 순간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후회하거나 의혹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나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현실에서 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 삶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제가 선택한 삶을 지켜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내게 걱정스럽긴 하지만 네가 택한 길이니 한 번 열심히 해보라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뒤에도 당신딸이 지치지 않기를 당부하며 선선히 승낙해 주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라는 표현한 번 제대로 못해봤다.

사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전엔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았다. 예를들어 가까운 부모님과 형제의 소중함, 그리고 주위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 소박한 삶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잘 안다. 그런점에서 난 아직 멀었다. 배워가는 중이기에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요즘은 육체적인 피로로 인해 주위분들에게 어쩔 힘빠진 모습으로 비춰보이진 않았나하는 질문을 해봤다. 그건 보이

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건 아니다. 단지 근본적인 나의 마음이 피로하지 않은데 나의 가끔 비치는 그런 모습에 단정 지어지는게 안타까워서이다. 주절주절 두서없이 써 내려왔다.

요즘어린이집의 이모들들 건강이 말이 아니다. 건강한 아이다 크기 위해선 건강한 엄마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루의 반이상을 같이 지내는 어린이집 이모들이 과중한 업무로 바쁘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에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이다. 이를 위해선 뛰어다닐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거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부모·교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 단지 내아이만을 보는게 아니라 '우리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

사방이 다 바다뿐이다.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난 지금도 우리아이들을 각자 집에서 무얼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광대한 자연속에서 작아만지는 나를 보며 몇지 썩보았다.

그때, 그 명성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김 수 현 (썩썩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이 없는 놀이방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생활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 7월, 8월.

우리 봉천지역, 재룡동리와 꽃망울은 그간 재정적인 문제와 아이들 확보의 어려움을 딛고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며, 전격적으로 봉천동의 꿈과 희망이 될 "썩썩이 어린이집" 준비과정에 돌입

했다.

다섯명의 교사가 준비과정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비영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더이상 저렴한 보육료와 장시간의 보육시간, 교사들의 헌신만으론 아이들과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놀이방 자체의 유지도 힘이드므로, 이제는 좀더 합리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내용, 양질의 보육이 요구되어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동안 우리식의 고유한 교육관 (아직 체계화되지도, 이론적으로 완성되

지도 않았지만)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정립하였다.

회의와 토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꿈에 가득차 있었다. 우리 모두가 바라던 정말 좋은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기가 넘쳐 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공간 문제가 생각외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첫 시련이 왔다. 쏟아지는 피약벌 아래, 도대체 우리공간은 어디에 있단 말이나. 봉천동, 신림동, 상도동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뒤지고다니기 4달째. 드디어 봉천10동에 우리의 큰 뜻을 펼칠 소중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와 애정 어린 시선들이 너무도 고마웠던 때였다. 특히, 예전 자모들의 "이모, 언제 문열어요 빨리 우리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문열어야돼요?" 라고 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

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않았다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아직, 할일이 많이남아 있다. 내부공사, 실내장식, 아이들 모집, 홍보등... 이제 겨우 공간마련을 했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남은 일정들을 잘 해내야겠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처음 놀이방문을 두드렸던 그 설레임 그대로, 길거리에서 길을 걷다 갑자기,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피어나던 그 시절처럼, 그때 그 마음처럼, 처음 마음 가짐 그대로 앞으로 씩씩이에서 만날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예전, 꽃동네, 씩씩이 놀이방의 화려한 명성 그대로 이어 씩씩 어린이집 그 멋지고 가슴벅찬 탄생을 손꼽아 새고 있다. **백민**

아이들의 생활기록부 소려들이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참으로 가슴 벅차게 느껴집니다
사랑으로 가득찬 같은 연 가을. 10월. 11월.

'우리네 방앗간'을 이용합니다.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최신회 재정사업국장이 손수 운전을 배워 경인지역정도는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지역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네 방앗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위원회별로 ① 매달 '우리 떡 먹는 날'을 정하여 신청하기 ② 생일잔치는 매월 동일한 날에 생일떡케익을 신청하기 ③ 영아식으로 미숫가루를 신청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미리 1주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차질없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는 지역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모색해 봅시다.

물품 : 각종 떡류, 생일떡 케익, 고추가루, 참기름(7,000원/병), 들기름(4,500원/병), 미숫가루(5,000원/kg).

보육계 중앙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 공동행사 개최

10여년간 올바른 아동보육과 보육시설에 대해 고민해 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남미영)와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서정은)는 「보육시설 확충과 질 개선을 위한 현실과 방향」에 대한 모색의 한 방안으로 각 주제별로 교육사업과 관련 행사를 11월, 12월 5주 동안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공동행사는

- 1) 교사, 원장, 예비원장 대상의 교육사업,
- 2) 보육관계자들 대상의 토론회 사업으로 진행하며 이 시기 보육사업의 현실을 조망하고 보육운동의 이슈와 제언점을 밝히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각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보육사업 관련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 목	일 시	장 소	대 상	주요내용	참 가 비
보육교사를 위한 성교육	11/9(토) 오후3:00	장충동 동사무소	보육교사 / 원장등	1)	1만원 (회원은 7천원)
제2회 개원요령 설명회	민간 / 가정 11/15(금) 직 장 11/22(금) 성공적 11/29(금) 운영사례	오후1:30 - 5:00 대학문화원 강당	민간 / 가정보육시설 운영예정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관련자 영아 / 24시간 / 방과후 / 장애아 보육 관계자	2) 3) 4)	3만원(기본교재 1부,요약집포함) 1만5천원 (사례 집 포함)
방과후 보육제도에 관한 토론회	12/6(금)		보육사업 관계자	5)	1만원 (자료집 포함)

◆ 주요 내용 ◆

- 1) 보육시설에서의 성교육
- 2) 보육사업 개론 / 설치 인가신청, 신고서 내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법과 지침 / 설치 계획 세우기 - 지역선정, 예산 등 / 원아 모집을 위한 홍보와 운영방침 세우기 / 일과 구성과 분반, 교사채용/필요한 비품 저렴하게 구입하기등.

「기본 생활 공간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 실제 보육시설을 보듯이 설명합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운영사례 발표 자리는 개원을 앞두신 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 3) 직장 보육시설 개요 /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 형태 /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 방향 -

원장과 보육교사 선임, 대상아동, 보육시간, 반구성, 보육료등/직장 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인가 신청, 신고서 / 직장 보육시설 관계자가 알아야 할 보육법령

『기본 생활공간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 실제 보육시설을 보듯이 설명합니다.

4) 영아 / 24시간 / 방과후 / 장애아 보육등 보육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무자와 만남의 자리 마련, 또한 일반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시청각 자료로 준비합니다.

- 5) 1부 방과후 아동보육 논의 : 1.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논의
2.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1)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2) 사회복지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제언
2부 방과후 아동보육 정책 논의 : 1.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각 단체의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한 정책 제언

◆ 신청방법 및 장소 안내 ◆

- 장소 : 중구 목정동 대학문화원 강당(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하차, 엠버서더호텔옆) 장충동동사무소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역 하차)
- 신청 : 11월 1일부터 선착순 150명
- 신청방법 : 전화신청 참가비 온라인 입금 접수 확인 입금증 당일지참
- 온라인 구좌 : 예금주 서정은

우체국 010231-0047916-12 농협 360-02-026990
조흥은행 371-06-158968 한일 170-160275-12-001

◆ 접수 및 문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02-275-8506)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02-271-1547)

LG백화점 문화센터 「자연건강미용법」 수강신청

일시 : 12/4(수)~2/26(화) 매주 수요일 14:00~16:00

접수기간 : 11/1(금)~11/30(토) *선착순 마감

수강료 : 3개월(12회) 70,000

접수처 및 장소 : LG 백화점문화센터 6층 (032)320-7605~7

문의 : 한국자연미용법연구회 (02) 736-2901(대)

성폭력상담실 운영-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단속과 예방을 위해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을 원하는 여성은 392-0118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 전문요원인 여성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직접 마포경찰서 민원실로 내방하면 되고 「마포구 아현3동 618-1」 마포경찰서 민원실내 여성상담실 앞으로 편지를 보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지켜진다.

엄마가 먼저아는 性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이래로 성폭력상담 및 관련 인권활동과 법·마련 활동을 해왔으며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1995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기관입니다. 특히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딸들을 위한 캠프', '사춘기 딸을 둔 어머니모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어머니 대상의 자녀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개선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 개 요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배경 :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가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있는 부모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성장기 자녀의 올바른 성인식과 건강한 성문화 및 성가치관 확립에 가장 큰 영향관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정확한 성지식과 자녀의 발달과 성문화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녀 성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 1) 자녀 (특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어머니

2) 청소년 성문화 실태에 대해 알고싶은 어머니

3) 청소년 성교육교재와 방법에 대해 알고싶은 분

시간 : 11월 8일 부터 매주 화, 금 11:00 ~ 14:00

장소 : 여성평화의집 교육실

진행 : 구훈모(여성학 강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이명희(성장상담연구소 연구원, YMCA 청소년성교육 교사)

* 집단상담 + 토론 + 강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생동감있게 진행됩니다.

회비 : 5만원

문의 : 여성의 전화

프로그램 :

월/일	주 제	내 용
11/8 11/12	성문화 보기	성교육 경험나누기, 여자, 남자 역할 다시보기 (가정/사회)
11/15 11/19	생물학적으로 살펴본 성	남녀 성발달과 성심리 차이 임신, 출산, 피임, 성질환
11/22	우리들의 성과 사랑	어머니들의 경험나누기
11/26	청소년 문화와 생활세계	청소년 문화의 현실, 그들의 관심과 고민 자녀들의 또래문화
11/29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 대책과 예방교육	성폭력, 성상담 사례보기
12/3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음란물)
12/6		읽기(성교육 실정과 교재)
12/10		쓰기(성교육 지침서)

강서청소년회관 11월 강좌

<어린이 강좌>

단소교실 : 매주 수요일 3시 30분(초급), 4시30분(중급), 3개월 4만원

종이접기교실 : 매주 화, 금요일 2시30분, 3시30분, 월2만원(재료비 별도)

서예교실 : 매주 화, 금요일 3시 30분, 4시30분, 3개월5만원

풍물(초급) : 매주 수요일 7시30분, 토요일3시, 월3만원

성폭력상담실 운영-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단속과 예방을 위해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을 원하는 여성은 392 0118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 전문요원인 여성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직접 마포경찰서 민원실로 내방하면 되고 「마포구 아현3동 618-1」 마포경찰서 민원실내 여성상담실 앞으로 편지를 보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지켜진다.

엄마가 먼저아는 性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이래로 성폭력상담 및 관련 인권활동과 법 마련 활동을 해왔으며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1995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기관입니다. 특히 본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딸들을 위한 캠프', '사춘기 딸을 둔 어머니모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어머니 대상의 자녀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개선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 개 요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배경 :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가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고있는 부모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성장기 자녀의 올바른 성인식과 건강한 성문화 및 성가치관 확립에 가장 큰 영향관계에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정확한 성지식과 자녀의 발달과 성문화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녀 성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 1) 자녀 (특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어머니

2) 청소년 성문화 실태에 대해 알고싶은 어머니

3) 청소년 성교육교재와 방법에 대해 알고싶은 분

시간 : 11월 8일 부터 매주 화, 금 11:00 ~ 14:00

장소 : 여성평화의집 교육실

진행 : 구훈모(여성학 강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이명희(성장상담연구소 연구원, YMCA 청소년성교육 교사)

* 집단상담 + 토론 + 강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생동감있게 진행됩니다.

회비 : 5만원

문의 : 여성의 전화

프로그램 :

월/일	주 제	내 용
11/8 11/12	성문화 보기	성교육 경험나누기, 여자, 남자 역할 다시보기 (가정/사회)
11/15 11/19	생물학적으로 살펴본 성	남녀 성발달과 성심리 차이 임신, 출산, 피임, 성질환
11/22	우리들의 성과 사랑	어머니들의 경험나누기
11/26	청소년 문화와 생활세계	청소년 문화의 현실, 그들의 관심과 고민 자녀들의 또래문화
11/29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 대책과 예방교육	성폭력, 성상담 사례보기
12/3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음란물)
12/6		읽기(성교육 실정과 교재)
12/10		쓰기(성교육 지침서)

강서청소년회관 11월 강좌

<어린이 강좌>

단소교실 : 매주 수요일 3시 30분(초급), 4시30분(중급), 3개월 4만원

종이접기교실 : 매주 화, 금요일 2시30분, 3시30분, 월2만원(재료비 별도)

서예교실 : 매주 화, 금요일 3시 30분, 4시30분, 3개월5만원

풍물(초급) : 매주 수요일 7시30분, 토요일3시, 월3만원

<토요사랑방 영화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1층 강당

9일 화이트 스쿨

16일 포카혼타스

23일 주만지

30일 로렌조 오일

(02)3664-2456

영유아보육학회

일시 : 11월 22일-23일

장소 : 한남대학교

주제 : 한국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실용성에 대한 검토 및 모형개발

문의처 : 0431)229-8222

한국어린이교육협회

일시 : 11월 16일

장소 : 연세대학교 알렌관

주제 : 유아교육원 현직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및 월례회

한국아동학회 연수

일시 : 11월 30일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주제 : 아동의 발달적 진단과 지도방법

문의처 : 3272-9571

제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일시 : 12월14일-17일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주최 : 한국유아교육원 및 (주)세계전람

소식과 소식

방과후 간담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와 공동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를 위한 토론회」의 사전 준비작업으로 10/4(금) 오후3시에 장충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진행은 기초발제로 그동안 공동팀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그후 각단체의 입장을 개진하는 자유토론과 종합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라기 보다는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큰 틀(아동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12세까지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상인 중학생까지를 포함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내용이 나와야 하고 공간은 이미 있는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자)을 합의하였고, 그 틀속에서 각 단체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단체 간담회를 열기로 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확보운동을 위한 워킹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내)에서는 10/8(화) 오후7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사회복지 예산 확보운동을 위한 워킹」을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영환교수(참여연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가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초발제(이 글은 본문에 실렸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고 간뒤 7개 단체의 지정토론 속에서 많은 실천적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후 공동위의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을 끝으로 마무리하였다.

여성단체장 간담회

지난 9월24일(화)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는 여성개발원 주최로 여성단체장 간담

회가 있었다. 여성개발원은 1983년 개원 이래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가운데 이 사업은 1996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여성단체지원 방향에 대한 각 여성단체의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단체지원 방향」으로 한국의국어대 법대교수인 이은영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7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지정되어 토론을 하였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참석하였다.

여인이 선정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맛 나는 평등직장, 살맛나는 평등사회" 열기 10계명

그간 우리는 여성들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성차별적인 법, 제도 개선,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모성보호 확대, 육아 및 가정생활지원, 직장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모집,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한 기업이 적발되고 있고 면접시 용모와 인상이 채용의 기준이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시작되면서 코스텔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 차별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을 시간제, 계약직, 촉탁직,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주변 노동력화 하고 저임금 노동력화 하고 있다.

이외에도 승진, 배치에서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여성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있다. 이처럼 이 사회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 안정되게 일하기 위해서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일맛 나는 평등직장, 살맛나는 평등사회"를 열어가며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실현해야 할 '10계명'을 선포하는 바이다.

1. 민간기업들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2. 여성의 핵심노동력화를 위해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3. 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보장을 사회보험화 해야 한다.
4. 여성인력을 주변화하는 비정규직(시간제, 파견제, 계약직, 임시직)의 여성화는 규제 되어야 한다.
5.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함을 초래하는 간접차별은 규제해야 한다.
6. 고용상의 성차별인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으로 여성노동자의 이직과 노동단절을 막아야 한다.
8. 산전산후 휴가는 90일로 확대하고 비용은 사회보험화해야 한다.
9. 유급생기휴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10.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고 핵심노동자화 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 고용은 '최소화 되어야 할 비용'이 아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성별역할 분업구조에 기초하여 보조적인 노동력으로 간주되었던 여성에 대한 노동관을 바꿔나가고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층 힘차게 내딛어 갈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교사 재교육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개최

본회 조직부에서는 10월19일 오후 3시에 여성평화의집 지하강당에서 회원·자료회원 약30명이 참석한 가운데 '96 제1회 교사재교육 사회복지와 영유아보육사업'이라는 주제하에 김종해교수를 모시고 강좌를 개최하였다.

강좌는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로서의 보육사업,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실태, 민간의 역할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듣고 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와 보육사업의 관련에 대해 김종해교수의 강의를 듣는 회원들은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

정희연 전부회장 유학보고회

10월19일 교사재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정희연 전부회장의 영국유학 보고회를 가졌다. 정희연 전부회장이 10개월동안 영국의 Women's Council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 현장실습을 마치고 지난 7월에 귀국하였다.

귀국후 우리회원들에게 유학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 교사재교육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정전부회장은 영국에서 10개월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떨리며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주로 현장실습을 간 곳 중심으로 배우고 느낀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리와 너무도 틀린 영국유아교육과 시설에 대해 들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유익한 자리였다.

여성평화의 집 식구들 단합대회

지난 10월 12일 여성평화의 집 식구들이 북한산 등반을 했다. 각 단체 식구들과 딸린 혹은(?) 세마리, 오지 말라는데도 굳이 따라온 누구네 남편, 스위스에서 여성의 전화에 연수 온 금발의 아가씨까지 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서로 우의를 다졌다.

93년,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함께 꾸린 여성평화의 집, 각 단체들은 안정된 공간에서 저마다 활발한 사업을 벌여왔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등반을 통해 조금은 더 깊어진 개인적 관계가 더 큰 일을 해낼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연]

현대사회와 성윤리 심포지움

10월 22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현대사회와 성윤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주제측은 우리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다양화와 개방화가 전개됨에 따라 성에 대한 개념이 개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으로 말미암아 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여, 성의식의 변화를 조명하고 성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토론하는 학술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주제측의 진단이 과연 옳은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억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의 형성되고 이를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제를 드러내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감에 있어,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가 곳곳에서 마련되어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번 심포지움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싶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조연설(현대사회와 성윤리)
- ◆ 주제강연(성의 억압과 해방 : 사회적 인식 / 성윤리, 성철학, 성교육)
- ◆ 분과주제발표 및 토론
 - ◇ 1분과 : 가족해체와 성문제(가족해체와 부부의 성문제 / 노년의 성과 성윤리)
 - ◇ 2분과 : 청소년의 성과 성윤리(청소년 세대의 성문제와 성윤리/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
 - ◇ 3분과 : 성의 상품화와 성문제(대중매체와 전자매체에 의한 성의 상품화 / 향락산업과 매매춘, 이대로 좋은가?)
 - ◇ 4분과 : 성규범과 법적 통제(혼외의 성과 법적 규제/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 5분과 : 성의식의 변화와 성차별(한국인의 성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차별과 성윤리: 성윤리에서의 성적 불평등)

♣ 지역소식 ♣

구로지역위원회

구로지역위원회는 10월11일 정기월례회의때 정회원 전부회장을 모시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 11월 8일에는 '환경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예정이다.

다우리와 새터, 영아교사교육모임에서는 9월 30일 '레지오 에밀리아'책을 발제와 토론할 예정이었는데 내용이 많아 토론은 하지 못하고 발제만 하였다. 교육연구부 조성경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참석하였다. 2차 교육은 11월 11일 계획이 되어있다.

안산지역위원회

진달래동산은 9월자모회의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총3회의 기획으로 1회의 주제는 '엄마,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이다.

◇ 성교육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96년 하반기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성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자모회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교육용자료는 미국의 컨설리티데이터사에서 만든 만화비디오 3편중 1편 '엄마,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요'를 보았다.

◇ 비디오 내용: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되어있다.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이해한 후, 흔히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물을때 황실수설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수정되고 태어나기까지를 약간은 우수왕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단 만4세 이상)

◇ 자모들의 반응은 쉬운 내용이라고 느끼며, 용어를 직접 적용해서 쓰는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생명의 탄생이나 사랑에 대한 것 보다는 성폭행이나 성평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 또한 여아를 기르는 부모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정리와 평가를 하자면 '생명의 성'에 대해

너무 경시하는게 아닌가 싶다.

성이라 하면 sex나 성폭행, 강간, 성평등, 레즈비언 등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요즘 우리나라 성인들의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수준이라는 걸 다시한번 확인했다.

낙태반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는 즉, 생명은 사랑으로만 잉태 되어야지 그렇지 못할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치는지를 성인들이 곰곰히 되새겨야 할때이다.

자모회의때 비디오를 보기전 성교육을 하는 의의와 성폭행, 성평등은 나중에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에 대한 의견만이나와서 토론이나 대화가 목적에 맞지 않아 안타까움이 남았다. 남자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성교육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을 보며 더욱 안타까웠다. 제대로된 성교육은 아이들 뿐아니라 부모 부터 배워야 한다. 성교육이 성폭행등에 대한 교육만일수는 없다. 교사들의 준비부족 또한 인정한다. 다음 교육에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유도 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광주지역위원회

광주지역위원회에서는 올바른 보육의 사회화와 보육운동의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육학교를 개최한다.

행사명은 '새싹가꾸는 희망공동체 제1기 아이사랑 보육학교', 장소는 광주YWCA 6층 강당이고

보육교사와 관심있는 학부모 및 일반인 그리고 영유아 교육관련학과생을 대상으로 한다.

◆ 일시 및 내용 ◆

일시	내용	강사
10월31일(목) pm 7:30	함께크는 우리 아이 -공동체보육에 대하여	정희연 (지킴이 전부회장)
11월1일(금) pm 7:30	생활속의 우리 가학 -유아 국악교육에 대하여	임수정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위원)
11월7일(목) pm 7:30	내마음을 알아주세요 -유아 놀이치료에 대하여	노명희 (전대 아동학 박사)
11월8일(금) pm 7:30	아이와 그림책	김중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전부회장)

♣ 사람들 ♣

* 결혼하십니다.

수원지역위 용기종기어린이집교사인 이주영 선생님이 10월26일(토) 롯데백화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쁘고 재주가 많은 이주영선생님 결혼 후에도 더욱더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전주지역위 대표인 금암어린이집의 임현정 선생님이 11월9일(토)에 결혼을 합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 후 건강이 좋아지길 바라며 행복한 결혼생활 하십시오. 두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연합회 10월 활동일지 ♣

- 10/1 조직논의 소위
- 2 여연 조직위원회
성교육 기획팀
직장탁아 개원요령 설명회 준비팀모임
- 4 방과후 탁아 간담회
서경평교사분과회의
집행위원회의
- 7 서경책임교사분과회의
- 9 편집부회의
- 10 서경지역대표자회의
- 12 여성평화의집 실무자 동반대회
직장탁아 개원요령 설명회 준비팀모임
- 14 집행위원회의
직장탁아 개원요령 설명회 준비팀모임
- 19 교사재교육
'사회복지와 영유아보육사업'강좌
정회원 전부회장 영국유학보고회
- 21 집행위원회의
직장탁아 개원요령 설명회 준비팀모임
- 22 서경평교사분과회의
- 23 지방지역대표자회의
편집부회의
- 25 지방평교사분과회의
- 28 집행부회의
- 31 서경지역대표자회의

편집부에서

* 「우리네 아이들」 편집과 편집부 일을 해주시던 지탁연 전조직선전부장 황미혜씨가 출산관계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고 큰 도움이 되었는데 부디 건강한 아이출산키 바랍니다.

*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원이 보강되었습니다.

안산지역위 질달래동산 박은하선생님과 수원지역위 용기종기어린이집 전교사인 정순옥 선생님이 10월달부터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편집부원이 보강이 된만큼 더 좋은 「우리네 아이들」이 되도록 편집부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남옥분, 안혜경, 최현선, 남향숙, 윤금주, 유재련

6개월 구독 : 이영복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칙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정책 연구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로 PC통신으로 제공됩니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5,77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특약요율의 65%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재산손해	건물 및 일가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45%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최종 적용요율의 45%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합인 할증요율)×45%
			1급	2급	3급	4급	
		1동지	6,230원	9,800원	15,725원	24,225원	
		2동지	7,800원	12,465원	33,315원	33,315원	
		3동지	9,200원	15,215원	34,735원	34,735원	
		4동지	11,305원	34,030원	39,940원	45,45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